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Closer to Future, Closer to Human

도시, 미래로의 열림과 누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인천에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서 세계도시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인천대교와 151층 인천타워빌딩 등 인천의 랜드마크 상징물을 배치하고 인천관, 미래도시관, 유비쿼터스 홍보관 그리고 미래도시의 업무 공간 등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2007. 3



Good Morning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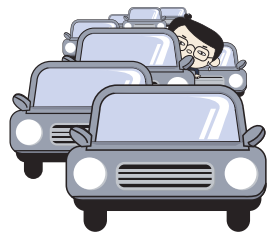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천마터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아직도 돌아서 다니십니까?



기존의 우회도로인 천마로와 당 천마터널을 통해서 백마장 사거리에서 석남1고가까지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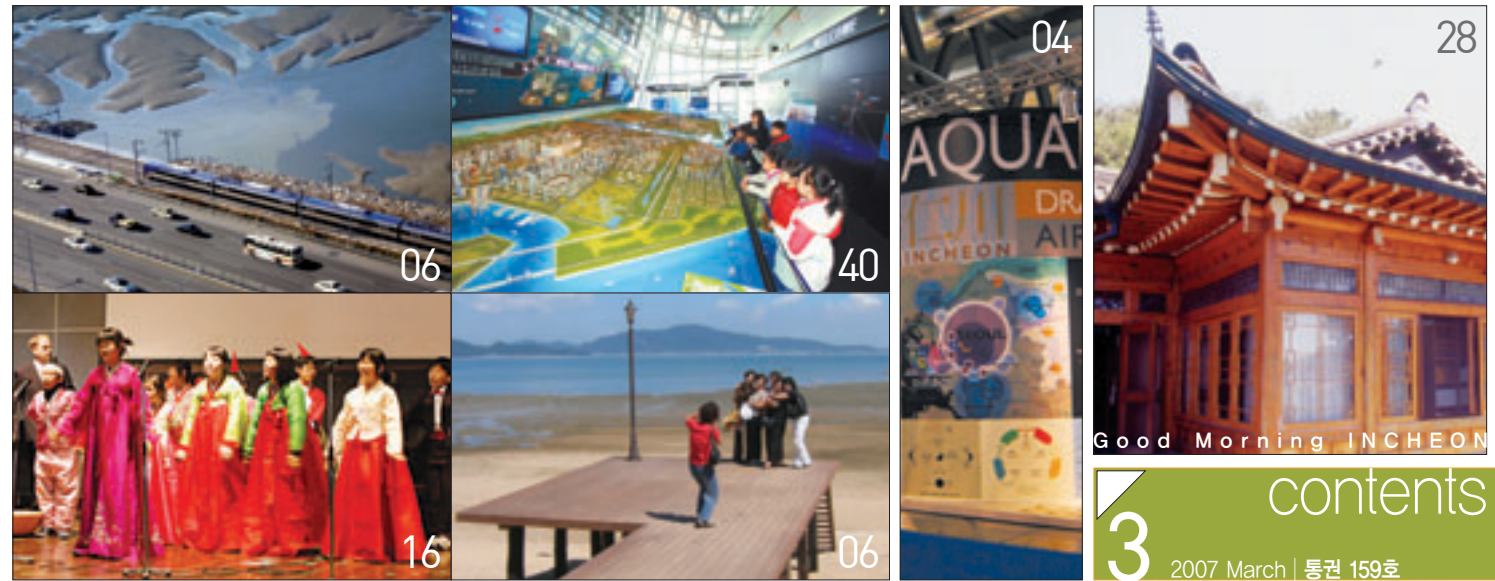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IC ↔ 북항 ↔ 청라도 ↔ 영종도 ↔ **인천공항**

이용도로	거 리	신호등	소요시간	유류비	통행료	계
천마터널	2.3km	2개	2분 정도	322원	700원	1,022원
천마로	4.1km	13개	12분 이상	1,376원	0	1,376원
차이	1.8km	11개	10분 이상	1,054원	700원	354원

※ (주) 본 자료는 특정일,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측한 자료입니다.(배기량은 2000cc 연비 10km/ℓ 휘발류 승용차 기준임)



천 마 개 발 (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133-8 Tel. 032)508-6891 Fax. 032)508-6896



Good Morning INCHEON



COVER
개나리 핀 서구 송학고갯길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여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3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4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 피에라 밀라노 빌드 업 엑스포
- 06 Coming Soon | 공항철도 개통
- 10 View | 송도국제도시 배움터
- 14 영어특별시, 인천① | 인천영어마을
- 16 영어특별시, 인천② | 영어관련 프로그램
- 20 조명 | 인천의 3·1만세운동
- 22 굿인천 굿뉴스 |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추진 외
- 25 IFEZ News | 영종지구내 무의 아트센터(가칭) 건립 외
- 26 의정소식 | 연세대 총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협조 당부 외
- 28 탐방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30 모닝커피 한 잔 | 축구실력과 국가브랜드
- 31 Healthy life 건강백세 | 고혈압
- 32 인천이 담긴 詩③ | 韓何雲의 작약도
- 34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 35 김치찰칼 | 독자사진 공모
- 36 이달의 공연 | 에버 브라스밴드의 뮤직스토리 외
- 38 문화마을 순례 | 만년 '문학소녀들'의 행복한 글쓰기 굴포문학회
- 40 아이들과 함께 동네 한바퀴 |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
- 42 웰빙 스페이스 | 환경관련시설
- 45 포커스 | 인천대 물리학 박사 배출
- 46 꿀돌이·꿀소리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③ |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근대적 군함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씨
- 52 독자글 마당 | 이번달 주제 '컴퓨터'
- 54 Info Box | 월미산 자연환경안내사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외
-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하루 다섯 마리면 칼슘걱정 뚝 '멸치'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71)

이탈리아 밀라노에 인천을 전시하다

글 · 정경애 편집위원 | 사진 · 하창원 시공보관실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우리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안상수 시장 등 시 관계자 34명이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빌드 업 엑스포(Build Up Expo 건축박람회)’에 참가했다.

빌드 업 엑스포는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SPA 주최로 100,000㎡의 전체 전시면적에 전시장 4~10동에서 펼쳐지는 건축기술과 건축물을 위해 결합된 유럽에서 가장 큰 건축박람회이다. 약 40만㎡ 규모의 종합전시장을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에 두고있는 피에라 밀라노는 세계 전시무대에서는 ‘홍행의 보증수표’로 평가되는 세계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단이다. 이 박람회는 유럽의 건축기술과 새로운 건축물 설계방법 등을 선보이는 자리로서 혁신적인 기술분야의 새로운 박람회를 대표한다. 우리시는 이번 박람회에 인천홍보관을 설치해 2009년 도시엑스포,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의 과거와 미래 모습 등을 전시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8일 오전에는 피에라 밀라노 측을 방문, 페리니 회장을 예방해 밀라노 엑스포와 회사소개, 관계협력사 소개, 밀라노 엑스포 등에 대해 경청하고 인천세계엑스포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개발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같은 날 오후, 피에라 밀라노 국제회의장에서는 도시 관련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시는 인천도시엑스포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등 인천시 프로젝트를 설명해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 홍보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2007 빌드 업 엑스포 인천시 홍보관에서 박람회에 참석한 베니스대학 교수 등 건축전문가들에게 인천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시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시는 안상수 시장이 직접 홍보물을 챙겨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시는 피에라 밀라노의 페리니회장과 피에라 밀라노 인천 국제전시장 건설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시는 영종물류복합단지내 약 82만㎡의 부지에 피에라 밀라노 인천국제전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피에라 밀라노사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케팅 및 전시장 시설 등 전반적인 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밀라노 시청을 찾아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밀라노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에 밝은 희망의 빛을 가져왔다. 🍀



열차타고 하늘 오른다



철길과 하늘길이 이어진다. 3월23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세계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제 인천시민들은 새로운 날개를 하나 더 달게 되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하늘날개 단 A'REX

공항철도는 1단계로 우선 김포공항~계양~검암~운서~공항화물청사~인천국제공항 구간 40.3km가 개통된다.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이제 세계로 열려 있는 하늘 길에 쉽게 올라 탈 수 있게 되었다.

공항철도 개통에 맞춰 문을 연 계양역은 이제 인천지하철의 종착역이 되었다. 종전의 종착역이었던 굴현역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 온 씨니(인천지하철 차량의 애칭)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A'REX (에이렉스·공항철도 이름)와 계양역에서 선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속'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플랫폼은 유리벽으로 빙 둘러싸인 모습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전동차 문이 열릴 때 같이 열린다.

파란색 공항철도에 올라탔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전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객차 벽면에는 19인치 LCD모니터가 설치돼 주요뉴스는 물론 뮤직비디오, 항공기 운항정보, 여행, 날씨 등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정보를 계속 상영한다. 탑승한 열차의 진행 위치를 LED 불빛으로 보여 주는 첨단 노선도가 눈에 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하는 객차 안내방송이 해외여행의 설레임을 더해 준다.



Tip

공항철도는 인천지하철과 계양역에서 접속되고 서울지하철과는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과 연결된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에는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 시티~홍대입구~공덕~서울역까지 연장된다.

우리는 현재의 노선에 계양~검암~(청라~영종)~운서~공항화물청사~인천국제공항~(용유) 등 3개역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공항철도는 일반과 직통열차가 있는데 일반열차(배차간격 12분)는 모든 역에 정차하고 좌석제인 직통열차(배차간격 1시간)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노스톱 운행한다. 요금은 일반 3,100원, 직통 7,900원이다. (문의 : 032-745-7788)



A'REX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평균속도가 70km로 도심전철 30km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역 간격이 긴데다 선로가 쪽쪽 뚫은 직선구간이라 구간에 따라서는 최고시속 110km로 달린다. 전철 등 기존 열차의 레일이 20여m 간격으로 이어져 있지만 공항철도는 KTX처럼 200여m의 긴 레일을 깔았고 저소음 전동차로 제작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덜덜덜덜'이란 의성어는 이제 공항철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위를 달리는 열차

계양역을 떠난 열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창문을 통해 경인 운하 굴포천 방수로의 모습이 시야에 계속 들어온다. 훗날 수로를 따라 열차와 함께 달리는 선박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부평벌을 굽어보고 있는 계양산의 자태도 뚜렷이 눈에 들어온다.

검암역을 지나자 본격적인 전원풍경이 펼쳐진다. 오른쪽으로 쓰레기매립장 드림파크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광활한 청라지역이 펼쳐진다. 인천 미래의 꿈이 영글고 있는 지역들이다. 열차는 공항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리무진버스와 앞서거니 하다가 이내 탄력을 받자 모든 풍경과 차량을 뒤로 제친다.

열차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는 검암역에서 운서역까지 약 10분 동안의 환상의 질주. 열차가 영종대교를 지나 영종도로 들어섰다. 기차타고 섬을 돌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군데나 있을까. 물끝과 땅끝이 닿을 듯 말 듯한 바다와 평원, 영화 <취화선>에서 장승업이 붓집 메고 걸었던 그 갯벌, 그리고 환송 나온 듯한 갈매기들의 한가로운 비행. 바다, 섬, 갯벌을 배경으로 한 멋진 그림들이 넓은 창에 수없이 걸린다.

만약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이곳을 지나면 승객들은 틀림없이 낮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방문객이 노을 지는 바다를 본다면 환상적인 한국의 이미지에 금방 매료될 것이다. 밤마다 조명쇼를 하는 영종대교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임에 틀림없다.

물위를 미끌어지듯 달린 열차는 영종도 운서역에 도착했다. '에어로시티' 운서지구 뒤로 서서히 공항 관제탑이 보이며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공항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운서를 벗어난 열차는 아쉽게도 지하로 들어갔다. 공항화물청사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은 지하에 설치돼 있다. 계양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27분 정도 걸렸다. 열차가 푸른 물 넘실거리는 을왕리해변까지 내려 달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다.



공항철도 타고 바다 유람하세~

마음먹기에 따라 공항철도는 관광유람열차로 변신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현재의 종착역인 인천국제공항역에 가면 서해 바다와 섬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인천공항역에서 내려 공항 3층 3번 출구 앞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301번, 306번 버스나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해변과 선착장에 다다를 수 있다.

용유도 을왕리는 최근 수도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 해변이다. 고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주변에 분위기 좋은 횃집과 카페가 많이 있다. 수평선 넘어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낙조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왕산해변은 조용하고 오붓한 시간을 갖기에 제격이다. 왕산해변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낙조는 용유8경의 하나이다.

영종도 중심에 떡 버티고 있는 백운산도 가볼 만한 곳이다. 산 중턱에는 천년고찰 용궁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사찰로 오르는 길은 '사색파'에게 적합한 한가로운 오솔길이다. 백운산 정상에 오르면 공항, 섬, 바다 등 영종도의 모든 것이 발아래 놓인다.

예전에 '구읍나루터'라고 불리던 선착장에 가면 어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바다의 싱싱함을 맛볼 수 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월미도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되돌아 나올 수 있다. 공항 남로 중간에는 인천국제공항 만큼이나 유명해진 해수온천탕 '해수피아'가 있다. 심해 800m 천연 암반해수를 사용하는 해수피아 노천탕의 열기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잘 어울린다.

용유도 남측공항로에는 무의도로 건너 갈 수 있는 잠진선착장이 있다. 무의도 하나개 해변은 은빛 모래사장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물끝 따라 하루종일 바다를 벗 삼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변가에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그림처럼 서있다. 이웃한 실미해변은 푸른 해송을 배경으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바다와 숲의 정취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인 실미도로 건너가 그 흔적을 둘러볼 수 있다. 무의도에는 '서해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호룡곡산(244m)과 국사봉(230m)이 봉긋 솟아있다. 바다를 굽어보며 등산하기 좋은 코스가 개발돼 있다.

북측공항로 중간에는 신도·시도·모도로 가는 삼목선착장이 있다. 배를 타고 신도에 내리면 시도, 모도는 연도교로 이어져 있어 한 섬처럼 자



유롭게 다닐 수 있다. 시도에는 끝에서 끝까지 한달음이면 닿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해변이 활처럼 휘어져 있는 수기해변이 있다.

이곳에는 비와 송혜교가 출연했던 <풀하우스>가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수기해변에서 산 쪽으로 몇 걸음 떼면 권상우, 김희선, 연정훈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 <슬픈연가>의 배경이 된, 지중해 해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얀색조의 별장 세트장이 섬 끝자락에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다.

작은 섬 모도에는 배미꾸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해변에 '이일호와 모도'라는 조각공원이 있다. 에로티시즘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들이 바다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송도에 찾아올 캠퍼스의 봄

송도국제도시가 점점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에서 연구와 생산이 한창이고, 지난달에는 국제업무단지가 착공돼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컨벤션센터호텔, 중앙공원 등도 구체화되고 있다.

송도에 입주하겠다는 학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송도국제학교가 지난해 3월 8일 착공식을 가진 것을 비롯해 인천대학교도 송도캠퍼스를 착공했고, 연세대학교는 송도 7공구에 약 181만㎡의 땅을 확보하고 송도캠퍼스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를 완료했다.

글 · 정경애 편집위원

조기유학 ‘뚝’ 송도국제학교

송도에서 학생들의 외글거림이 가장 먼저 들릴 곳은 송도국제학교(New Songdo City International School : NSCIS). 지난해 3월 착공식을 갖고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훌륭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녀의 교육환경은 외국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HAG(Harvard Advisory Group)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교육, 운영, 학비 등 우리 여건에 맞는 국제학교의 모델을 찾았고, 지난 2005년 10월에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인터내셔널스쿨서비스(International School Service)와 협약을 맺고 학교 운영을 맡기로 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밀튼 아카데미(Milton Academy)와 파트너십을 맺는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교직원 교류 등을 하기로 했다. 밀튼아카데미는 하버드, 브라운, 예일 등 명문대 진학 비율에서 미국내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는 독립된 사립교육기관이자 국제공인을 받은 인증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고 한국은 물론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 부지 위에 건설될 학교는 최첨단 과학시설을 갖춘 교육환경과 선진교육 기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도는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외국인 자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전교생의 30% 범위 내에서 한국 학생들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학생의 비율은 점차 축소해 2012년 이후에는 외국인이 정원의 90%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과 영국의 최고 사립 교육기관에 버금가는 교과과정으로 진행된다. 미국 최고(最古)의 교육 인증기관인 뉴잉글랜드 학교 및 대학협회(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NEASC), 유럽에 소재 한 국제학교 위원회(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 CIS) 및 국제학위협회(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O)를 통해 국제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명문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고 명문대학교 진학도 준비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송도국제학교는 올해 말이면 공정율이 72%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9월에 문을 열어 신입생 350명을 뽑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100명까지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학제는 부설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교 4년 등으로 짜여 있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교사 1명당 10명 수준의 학급으로 운영돼 진정한 국제학교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인천대송도캠퍼스 조감도



연세대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 협약식

국립인천대학, 송도캠퍼스에서 새출발~

국립대 전환이 확정된 인천대학교도 송도 캠퍼스의 꿈이 부풀고 있다.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는 송도신도시 4-6블록의 대지면적 약 45만8천㎡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25개 동으로 지어진다. 지난 2006년 11월 27일 건립공사를 시작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는 대학본부, 도서관, 각 단과대학 건물, 종합 강의동,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공장형 실험실, 복지관, 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캠퍼스가 완공되면 2009년부터 인천대학교는 송도캠퍼스 시대가 열린다. 국립대 전환도 이와 때를 같이한다. 인천대는 송도신캠퍼스 완공과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과 공동연구, 외국대학교 분교 유치 및 외국 학교와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도캠퍼스는 21세기형 캠퍼스로 건설된다. 인천대의 송도캠퍼스 조성비용은 남구 도화동에 있는 현재의 캠퍼스 부지 약 41만㎡를 우리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벌여 얻는 이익금 중 일부로 조달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국립대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도 빼놓지 않는다. 대학의 첨단 장비와 문화공간, 체육 시설들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천대학 송도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으로서 글로벌 경쟁시대를 리드하는 미래의 대학으로 웅비하게 될 것이다.

송도에 신촌 독수리 난다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도 송도에 새 둥지를 튼다. 연세대는 2010년까지 송도에 약 181만㎡ 규모의 국제화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우리시와 협약을 맺었다.

연세대학교는 신촌캠퍼스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1990년 초부터 제3의 캠퍼스를 물색하고 여러 부지를 검토한 끝에 송도에 발도장을 찍었다. 송도가 신촌 근처이기 때문에 근접성 등에서 적지라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21년전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만큼 인천과는 각별한 인연을 가진 것도 한 몫했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크게 글로벌캠퍼스와 사이언스파크 두 가지 핵심시설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캠퍼스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이언스파크나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리서치파크와 같이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연세대 학생·교수와 외국인 학생·교수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다.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에 레지던셜칼리지(Residence College) 개념을 도입해 신입생 전원이 송도캠퍼스의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81만㎡ 중 약 91만5천6백㎡ 부지에 조성되는 1단계 사업에서 우선 학부생 7천명을 위한 캠퍼스와 기숙사를 조성해 2010년 3월 문을 열 계획이다.



한편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연세대의 교수, 대학원생 등의 연구진과 외국의 연구진이 같이 연구하게 된다.

연세대는 송도캠퍼스 시대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에는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송도캠퍼스의 약16만5천㎡에 이르는 연구개발 시설용지에 약9천9백㎡ 규모의 ‘연세·하버드-스미소니언우주첨단기술 협력연구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적인 명문대 미국의 UC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대학과 협약을 맺고 ‘UC 버클리 동아시아 교육 기지’(East Asian Education Base for UC Berkeley)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UC 버클리 동아시아 교육 기지’는 UC 버클리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매 학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조인트 유니버시티 캠퍼스에 머무르며 강의를 개설하고 수업을 듣는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송도에 둥지를 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인천가톨릭대학은 지난달 23일 송도 캠퍼스 착공식을 갖고 제2캠퍼스 시대를 열 준비에 들어갔다. 96년 개교한 인천가톨릭대학은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신학과, 신학대학원 등을 갖추고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200여명의 재학생에게 사제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인천가톨릭대학의 제2캠퍼스가 될 송도캠퍼스는 약 1만5천5백㎡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약 1만3천2백㎡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가톨릭대학은 송도캠퍼스를 종교미술 전문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캠퍼스에는 종교미술학부, 평생교육원, 연구소 등이 들어온다. 한국기독교 미술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첨단 디자인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차세대 젊은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인천가톨릭대의 송도캠퍼스는 내년 가을부터 운영돼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받게 될 계획이다. 산·학·연 정보교육의 장을 활성화해 디지털시대에 맞춘 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인천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

송도, 학문 연구의 허브로 자리잡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에 대학 및 연구시설을 유치해 세계적인 산·학·연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미 연세대와 인천대 유치가 확정됐고 한국외대는 통변역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우리시와 체결하고 2008년 컨벤션센터 완공시점에 맞춰 통변역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대는 ‘생명 의학단지 및 물류유통 산학단지’, 서강대는 대학원과 연구개발센터가 포함된 ‘서강 송도국제테크노파크’, 인하대는 공과대 중심의 대학 대학원과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글로벌 지식기업형 캠퍼스’, 가천의대는 ‘생명 의과학 연구개발단지’, 중앙대는 ‘국제문화예술허브’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메디컬허브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각 대학들의 의학연구소설치 의지도 활발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 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4시간 A^BC^D ... 작은 ‘영어왕국’

‘기러기야빠’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해진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영어라도 배워오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로 떠나는 ‘묻지마 유학’의 병폐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도대체 ‘영어가 뭐길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글 · 정경애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웰컴투 ‘ICEV’

영어를 굳이 외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 인천에 사는 학생이라면, 단순히 영어 때문에 ‘묻지마 유학’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기위해 우리시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선두에 선 것이 바로 서구 당하동에 자리 잡은 ‘인천영어마을(Incheon English Village-ICEV)’이다.

지난 2005년 우리시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어마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글로벌에듀(재단법인 팔봉산업교육원 · 이사장 이우영)가 영어마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2월 문을 열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서구 검단에서도 한참을 쏙-들어가면 기하학적인 외형을 한 인천영어마을과 만나게 된다. 이곳에 들어오면 외국으로 나가는 첫 관문인 비행기를 타는 생활체험으로 교육이 시작된다. 음료를 주문하고, 서빙을 받는 ‘비행기 체험’이 진행되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심사대가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등의 대화를 주고받으면 다른 나라에 도착한 것과 같은 ‘생생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편의점, 호텔, 은행, 우체국, 병원, 티켓박스, 자동차 등의 생활체험이 마련돼 있어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겪어보면서 자연스런 영어를 익히게 된다.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은 크게 생활체험, 직업체험, 문화체험, 단체 활동으로 이뤄진다. 그중 인천영어마을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직업체험. 장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혹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가에 따라 과학자, 건축가, 미술가, 음악가, 방송인 체험을 선택한다.

2월 둘째주 인천영어마을의 주민이 된 김동진(강화초6)군은 박지성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리틀펠레 체험이 없어 아쉽지만 이곳에서는 리틀모차르트가 되기로 했다. ‘축구 선수가 되려면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문(愚問)에 ‘멋진 프리미어리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영어야 노~을자

문화체험에는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영어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천홍보대사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이채롭다. 원어민 선생님께 인천에 대해 배운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원어민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송도신도시 홍보관 등을 미리 둘러보고 인천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체험한 후 학생들 앞에 선다. 그러니 우리시로서는 원어민 인천홍보대사와 어린이 인천홍보대사를 동시에 양성해 내는 프로그램인 셈. 문화체험에는 이밖에도 요리체험, 세계 문화체험, 스포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는 모두들 생활관으로 이동해 단체 생활을 한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4명의 친구가 5박6일 동안 살을 맞대고 지낸다. 생활관에 와서도 영어체험은 계속된다. 저녁 식사 후에는 로비에 모여 원어민선생님과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경험하지 못



했던 영어를 새롭게 접한다.

이 모든 수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온 26명의 원어민 선생님을 비롯한 22명의 내국인 선생님들이 전부 영어로 진행한다. 그러니 아이들은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씩 영어로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인천영어마을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시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 지난해까지는 5·6학년을 대상으로 44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모두 8천8백 명의 학생이 영어마을에서 살다 갔다. 올해부터는 4학년까지 확대하고, 25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49주로 늘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12,250명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살다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1인당 교육비는 43만5천원. 이 가운데 학생들은 12만원만 부담하고 1인당 31만5천원을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 매기수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자리를 10%씩 마련해 놓은 것도 우리시의 배려다. 입학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리시가 전액 지원한다. (문의 : ☎560-8171) 🍌



5박 6일이 부담? 그럼 일일 체험은 어때요?

인천영어마을에서는 지난해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5박6일 프로그램의 경험을 살려 주말에 심화학습을 하는 프로그램과 하루 동안 영어마을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한다.

인천영어마을에서 5박 6일 동안 살다 간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영어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2주 동안 좀더 심화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거친 후에 입학을 하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새로운 영어 세계를 접하게 된다. 매기수마다 100명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12주에 48만원이다.

일요일에도 영어마을의 문은 열려있다. 초, 중등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영어마을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생활체험 프로그램 중 일부를 ‘맛보기’식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체험하는데 드는 비용은 5만원이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일일체험프로그램의 문도 열었다. 직장 등에서 단체로 영어마을 체험을 원할 경우 그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은

English(Incheon+English) 공화국에 산다

우리시의 영어실력늘리기 프로그램은 비단 영어마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시와 교육청 등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통해 '영어공화국' 인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글 · 정경애 편집위원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학교에서 만나는 파란눈의 선생님



우리시는 지난해 123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다. 올해는 14명을 추가해 초등학교 72, 중학교 41, 고등학교 24 등 137개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시 교육청에서 배치한 52명과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서구청에서 자체 고용해 각급 학교에 배치한 28명을 포함하면 모두 221명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영어 원어민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방과 후 교실, 학교 내 교사지도,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활용된다. 배치학교 선정은 원어민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배치계획표를 받은 후 우리시가 심사해 선정했다.

특별히 우리시는 원어민교사 선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의 공인된 에 이전시를 통해 원어민교사를 선발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교육청 산하 어학훈련센터와 협약을 맺고 이곳을 통해 선발하며 교사를 선발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면접에 참여하기도 한다. (문의 : ☎ 440-2728)

영어마을로 '통학' 하는 서구 아이들

서구는 지난 2005년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완화되고 체류 기간 규제가 완화되는 '특구' 이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채용이 활발한데다 서구영어마을도 세워 외국어특구의 '특혜' 를 맘껏 누리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8명의 원어민교사를 고용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실용영어 위주의 회화수업을 하고 있다. 서구 원당동의 창신초등학교를 리 모델링해 교육전문기업인 웅진씽크빅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9월 서구영어마을의 문도 열었다.

서구영어마을은 다른 영어마을과는 달리 비숙박, 방과후 통학형태로 운영돼 서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영어마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은 영어마을 통학버스로 영어마을에 다시 등교한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 차례 두 시간씩 3개월 동안 꾸준히 원어민선생님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살아있는 영어를 체득하게 된다.

서구영어마을에서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School Zone에서 소그룹 활동이나 활동적인 수업을 통해 영어의 기본을 익히고 과학, 댄스, 독서, 미술, 방송, 스포츠, 요리, 음악, 퀴즈쇼, 패션 등의 체험실에서 실전 영어를 체험해 영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문의 : ☎ 560-1002~12)



중학교에 세운 작은 영어마을



부평의 청천중학교(교장 김관수)는 원어민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 작은 영어마을인 잉글리쉬존을 꾸몄다. 학교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GM대우 오토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학교 안에 체험식 영어학습공간을 꾸민 것이다.

청천중학교의 잉글리쉬존은 공항입국심사대, 여행사, 카페, 편의점 등 4개의 체험 코너로 꾸며져 있다. 공항에서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입국심사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페에서 음식은 어떻게 주문하는지 등을 미리 수업한다. 그다음 비로소 원어민과 만나 일대 일로 대화를 나누는 실전연습에 들어간다. 또한 단어, 전치사, 문법을 습득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4개의 게임교실도 운영돼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매달 휴무토요일에 문을 열어 한달 코스로 운영되는 잉글리쉬존에는 원어민선생님 1명과 GM대우의 임직원인 원어민 3명이 학생들의 파트너가 돼 준다. 여기에 청천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이 보조강사가 돼 주니 원어민에 대한 부담감도 덜하다.

지난해 9월 문을 열어 120명의 학생이 잉글리쉬존을 체험했다. 올 여름방학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문의 : ☎ 516-9747)

대학캠퍼스의 '키즈캠프'

함께 숙박을 하면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영어를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효시는 인천대의 키즈 잉글리쉬캠프다.

인천대는 2006년 1월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어캠프를 시작했다. 원어민 교수 23명, 내국인 교수 15명을 초빙해 대학의 영어교육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외국어교육과 평생교육을 진행하던 인천대가 어린이 교육에 눈을 돌려 키즈캠프를 마련한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4차에 걸친 영어캠프를 개최한 결과 지난해에는 474명이 캠프를 다녀갔다.

키즈캠프는 탄탄한 교수진을 비롯해 대학의 시설을 활용해 초등교육과 연관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벨테스트를 거쳐 캠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수업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높은 것 또한 장점이다. 키즈캠프의 프로그램은 병원, 은행, 우체국 등의 상황을 가상의 즐거운 영어회화, 드라마, 노래, 춤 등을 영어로 배우는 조별특색프로그램, 요리, 마술 등을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 주위 모으기 게임, 보물찾기 등의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캠프 참가비는 60만원으로 개인이 3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 각 기수별로 10%는 소년소녀 가장에 할당돼 전액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문의 : ☎ 770-9026~7)

학원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연수원



우리시 교육연수원(원장 허희숙) 외국어수련부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실생활 상황에서 원어민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3박 4일의 숙박프로그램인 'Jump Into English'가 큰 호응을 얻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영어교과 성적 10% 이내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10명씩 10개 반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Jump Into English는 경제성 있는 영어체험모델로 평가받아 국정브리핑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고, 국가정책방송(KTV)에 '영어교육 공교육으로 해결한다'는 주제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어영재들에게 폭넓은 영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Fly to the World'도 눈에 띈다. 중학교 2학년으로 영어교과성적 5%이내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다. 듣기, 쓰기, 읽기 등은 물론 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Writing & Debating Class가 강화된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섬지역 등 자칫 영어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Reach for the World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해외여행 기회가 거의 없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해외여행 탑승 수속 등의 체험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섬지역 학생들은 3박 4일, 도시지역에 사는 교육소외 계층 학생들은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과 만나는 교사들을 위한 중등영어회화심화과정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교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니, 원어민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을 양성해 영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문의 : ☎ 751-0231~7)

우리인재 우리가 키운다, 인천외고인터내셔널센터



인천의 유일한 외국어고등학교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 인터내셔널센터가 생긴다. 기숙사형 특목고등학교를 선호하는 우수한 인재가

서울, 경기도 등지의 학교로 진학하는 폐단을 막고, 외국어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이다.

인터내셔널센터는 기존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외국인 교사와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문화체험실습실, 어학실, 학술세미나가 가능한 다목적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지상 8층에 연면적 5천72㎡로 건립된다.

인터내셔널 센터가 건립되면 인천외고는 2008년 신입생 모집부터 단계별로 학생을 증원하고 지역 주민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개방해 구도심 지역의 외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 : ☎ 511-3144)

노래하며 배우는 영어, 뮤지컬 잉글리쉬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래로 ABC를 배웠던 기억이 있을 터이다. 노래는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놀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덕분에 암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뮤지컬잉글리쉬'는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배우도록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뮤지컬잉글리쉬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영어 뮤지컬로 각색해 직접 연습해 보고 무대

에도 올린다. 아이들은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연극을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지난해에는 학산소극장에서 <Snow White>와 <흥부 and 놀부> 등을 무대에 올려 쌓은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극단 <십년후>는 10여년간 '흥부전' '스크루지' 등을 영어아동극으로 무대에 올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의 : ☎ 880-4763, 866-3993)

찾아가는 체험 영어, 주말영어광장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이동식 외국어체험마을 프로그램으로 주말영어광장(Weekly English Plaza)을 운영한다.

올해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부평공원, 연수구청광장, 오조산공원 등 4곳에서 9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섬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섬 영어마을(Fun English Island)'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영어 및 원어민교사 50명이 7월 중 5개 도서지역을 찾아가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험 영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문의 : ☎ 420-8225)



엄마도 한다, 시민대학 초등영어지도자과정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어에 자신 없기는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교에, 학원에 맡기기는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부모들을 위해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천시민대학에서는 초등영어지도자과정을 개설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재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지 부모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의 바른 영어공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 영어회화를 곁들여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도록 돕는다.

초등영어지도자과정을 2학기까지 수료하면 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초등영어지도사'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초등영어지도사'라는 당당한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

(문의 : ☎ 441-5394~5). 🐦

전·현·주 영어교육특별보좌관

'영어특별시 인천' 만드는 영어전도사



전현주(46)씨는 좀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천시장 영어교육 특별보좌관'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직책이니 우리시가 얼마나 영어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우리시가 영어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원어민 강사 파견, 영어마을에서의 체험 학습 등을 기획하고 그것이 실현되게 한 사람이 바로 전 보좌관이다. 고려대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20여년간 일선에서 영어교육을 하던 경험을 살려 우리시와 인연을 맺었다.

전 보좌관은 시 교육청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의 영어교육 흐름에 따르면서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영어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시 교육청이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 등으로 전국 교육청 영어교육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것도 바로 이런 밑바탕 덕분이다.

"장기적으로는 원어민 강사에 필적하는 영어구사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어교육방법 개발하겠다"는 것이 전 보좌관의 포부이다.

배다리에서 부평벌 너머 강화도까지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 만세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일본도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천에서도
부민(府民)들이 너나없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뛰쳐나와
배다리 장터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글·유동현 본지면집장 | 자료제공·창영초등학교총동문회



인천공립보통학교 (현 창영초교) 제1회졸업식



창영초교 교정에 세워진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발상지기념비

인천공립보통학교에서 만세 첫 깃발

인천의 만세 불씨는 초등학교에서 지펴졌다. 만세의 첫 깃발을 올린 것은 3월6일 인천공립보통학교 (현 창영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어느 단체의 지령이나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항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오에 학교를 출발해 인천공립상업학교(현 인천고등학교) 학생들과 배다리에서 합류해 채미전 거리(동인천역 부근) 등 시내 중심지에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일반시민들이 께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 25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3학년이었던 김명진(18)은 징역형 2년, 4학년이었던 이만용(18)과 박철준(19)은 각각 태형 90대를 선고받았다. 당시 3학년이었던 손창신(16)은 나이가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해 석방되었다.

김명진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복심원에 항소했다. 그는 일본인 판사 앞에서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바탕한 의사발동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그는 결국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처는 1996년 8월15일 광복절에 김명진의 유족에게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했다.

창영초등학교총동창회는 옛 일본총독부 재판기록 등 고증자료를 조사, 확인하고 후배들과 시민들에게 지사들의 고귀한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3월 6일 모교 교정에 햇불 모양의 웅대한 자연석으로 '3·1독립만세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를 세웠다.



이만용(李萬用)



김명진(金明辰)



박철준(朴哲俊)



손창신(孫昌新)

만국공원에서 국민대회

그들의 외침은 인천의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3월 8일, 인천 전역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됐다. 이튿날 오후 기독교 신자, 청년, 학생 등 3백여 명이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모여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다.

12일, 강화보통학교 3, 4학년생들이 칠판에 태극기를 그려놓고 만세를 부른 후 거리로 나서려하자 교직원들이 이를 저지했다. 이튿날 다시 1백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불러 경찰에 연행됐고 18일 오후 강화읍내 장터에서 6천여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이후에도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23일에는 용유도에서 혈성단이 조직되고 만세 격문 80여 통을 남북리, 을왕리, 덕교리 등에 배포했다. 24일 오후, 부평시장과 계양면 장거리 황어장터에서도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부평에서 군중들은 면사무소를 파괴하며 경찰과 격투를 벌여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여러 날에 걸쳐 인천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인천의 3·6 만세 운동의 대미는 4월 2일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펼쳐졌다. 시위대는 만국공원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조선 가정부를 선포하고, 파리강화회의와 세계 각국에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며 그 취지를 담은 선포문을 일반에게 알렸다. 이 만국공원 대회는 인천의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었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19년 당시 인천 인구 3만6천여명 중 절반 가까운 수가 일본인이었다. 일제는 인천의 식민통치의 교두보 시설들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경찰 병력은 물론 군인들 까지 주둔시키며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천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경계 태세가 삼엄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만세운동은 그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던 시위보다 일본인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신문들은 만세운동의 일환으로 상점을 모두 닫은 인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해변의 파도 소리만 시가지를 울렸다'고 전했다. 🌊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추진



우리시는 200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 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1인당 2,00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시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인천을 찾는 외국인의 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6

엑스포조직위원장에 강동석 전 장관

우리시는 지난 2월 1일자로 출범된 (재)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총지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하는 등 인천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고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명예위원장에 오명전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를, 고문직에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위촉하여 엑스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전엑스포 조직위원장의 경험을 가진 오명 명예위원장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추진에 많은 노하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우리시는 저소득 중증노인이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일부 지원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1인당 1백만3천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설별 요양 필수점수와 시설입소 인정점수 평가판정 방법을 통해 이용료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군구 노인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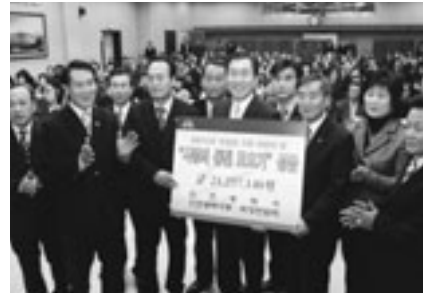
지역 농산물 지하철 나들이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에서는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설날을 전후하여 우수한 인천농특산물을 역사 내에 전시홍보 및 주문판매하는 인천농산물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행사는 2월2일 인천 시청역사를 시작으로 9개 역사에서 3월1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농촌사랑사진 및 우수농산물 화판이 전시된다. 또한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규방공예 관광상품과 화훼류를 이용한 생활원예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시 농업기술센터 ☎ 440-6912

사랑의 동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인천광역시 동·리장연합회(회장 오인영)에서는 2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로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리시는 작년 12월에 실시된 소양교육에서 3천900여 통·리장에게 돼지저금통을 배부한 바 있다. 통·리장은 2개월 여간 가정이나 사무실에 방치돼 동전을 모아 2천125만7천140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1

함께 느껴보는 인천의 관광지

우리시에서는 '함께 호흡하는 관광인천 체험'을 주제로 독거노인, 부·모자 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인천의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우리시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하루 코스 테마관광으로 둘러보는 것이다. 관광코스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부·모자 가정의 청소년들은 차이나타운 및 자유공원, 월미공원전망대, 갯벌타워, 인천항갑문 등을 둘러보게 되고 독거노인들은 광성보, 전등사, 강화역사관, 농경문화관 등 강화유적지를 돌아본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군구의 문화관광 업무 추진부서로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5

산업평화 대상 시상식 열려



제16회 인천시 산업평화대상과 제1회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단체 및 개인에게 산업평화대상이 수여됐다. 단체분야 수상자는 노동조합부문은 서해건설(박창호 위원장), 경신공업(전재한 지부장)이, 기업체부문은 이진창호시스

템(이경봉 대표), 동부한농 인천공장(황정선 대표)이 선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는 제1회 인천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 6명에 상패를 전달했다. 제1회 인천시 중소기업인대상은 대상 김익환(우진세렉스), 우수상 이승우(대금산업), 손대업(나스캠)씨 등이 수상했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 440-2943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 실시

우리 인천에 전국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시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중·고교 수학여행 담당교원 팸투어를 실시해 89개교 14,518명의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수학여행을 다녀갔다. 우리시는 금년에도 보다 많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인천만의 차별화되고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테마별 코스를 선정하여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전국 초·중·고교 수학여행 담당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교원들은 LNG가스과 학관, 과학상설전시관, 곤충농장, 강화고인돌, 광성보, 전등사와 시도의 MBC 슬픈연가 및 KBS 폴하우스 세트장 등을 둘러봤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4



뉴스 Zoom In

시내버스 고객, “서비스 만족해요~”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도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조사결과 운행버스 1천994대중 4년 이내 도입차량 비율은 59.6%, CNG 및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 도입율은 63.4%로 인천시내버스의 현대화 및 고급버스 도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 1대당 연간 교통사고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인천 시내버스 29개 업체와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수도 0.45건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버스업체의 운전기사에 대한 체불임금, 운전자관리 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버스업체의 부채 및 유동비율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업체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1천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서비스평가의 경우 고객만족도는 지난해 60.1점에서 69.2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교통카드 충전시설 편리성(75.77점), 교통카드 단말기(74.49점), 시내버스 청결성(69.55점), 시내버스 쾌적성(69.53점)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배차간격 적절성(63.21점), 배차간격 준수율(64.05점), 안전운행(66.43점), 정류장 청결성(67.93점) 등은 만족도가 낮아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종합평가 결과 동화운수(주), 세원교통(주), 시영운수(주)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5



상담포털 다시한번(think)사이트 오픈
우리는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상담기관 사이트를 통합하여 한번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담포털 '다시한번(Think)'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상담기관은 개별 법령에 의해 12개 민간 전문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우리는 12개의 각기 다른 분야의 상담기관 사이트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담 포털 '다시한번(Think)'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12개 상담기관의 분야별 전문상담, 자가 검진, 상담사례 검색,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칼럼 등의 다양한 웹 서비스

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시한번(Think)'은 무슨 일이든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think.incheon.go.kr>로 접속하면 다시한번(Think)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66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식 열려

인천과학영재교육원(Incheon Science Elite Program) 2006학년도 수료식이 지난달 1일 인천대학교 본관7층 합동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립한 인천과학영재교



육원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평가에서 8년연속 전국 25개 영재교육기관중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명성을 전국에 드높이고 있다.

그간 2,723명의 수료생중에는 대통령장학생 6명, 민족사관고 등 명문고 진학 184명, 인천과학고 졸업후 KAIST 진학자 130명중 68명을 배출하여 그 실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041

‘Smile with English’ 영어도시 선포식
우리가 영어도시로 거듭난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영어가 통용되는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영어도시 슬로건을 ‘Smile with English’로, 이에 따른 서브 슬로건은 ‘IFEng.Z(Incheon Free English Zone)’으로 정하고 지난달 27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영어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우리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어도시’는 2020년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2009년까지는 글로벌마인드 확산 및 영어 붐 조성에 힘쓰고, 2단계로 영어환경 인프라구축과 영어사용 인구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어환경이 성숙하고 영어역량이 제고되는 영어도시를 만들 것이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728



인천지하철 연장 계양역 개통



인천지하철 굴현역과 계양역을 잇는 1.3km의 노선 공사가 완료돼 계양역이 3월 16일 개통된다. 우리는 지난 2000년부터 509억원의 시비를 들여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해 마침내 계양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천지하철 계양역은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를 잇는 공항철도의 환승역이기도 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양역이 개통되는 3월 16일 계양역 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를 초청한 경축행사가. 개통식이 시작되기 전 식전행사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식전행사에서는 풍물패와 퓨전난타 공연으로 계양역 개통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띄운다. 오후 2시부터 이어지는 공식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시승식을 갖는다.

문의 |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40



영종지구내 무의 아트센터(가칭) 건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무의 아트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의 아트센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관광단지 지역에 위치하며, 약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석 규모의 스튜디오 형식 공연장인 아트홀과 20~30실 규모의 최고급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로 구성할 계획이다. 무의아트센터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계 및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계의 다보스포럼 같은 ‘국제예술인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특히 2009년 인천 세계도시 EXPO 기간 중 세계적인 지도급 인사 및 방문객의 회의·교류·이벤트 장소 및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OCA회원국 언론기자 초청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OCA 회원국 가운데 몽골,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태국 등 6개국 해외언론인 10명을 인천으로 초청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초청된 해외언론인들은 3월 2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문학경기장과 삼산월드체육관 등 체육시설, 인천국제공항

등을 다니며 인천의 도시인프라를 견학했다.

5·7공구 내측 해안 철책 철거 합의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13일 관할부대와 군사시설 철거 및 이설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매립면허 승인시 협의조건 중 매립이 완료된 지역 및 해안도로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해안 철책 등)의 철거 및 이설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 체결로 인하여 송도 5·7공구 내측해안에 위치한 1.6km의 군부대 판망형 철책의 철거 협의를 명백히 하여 매립공사 및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도 7공구 매립면허 승인시 군부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토록 요구한 군 시설물인 종합통제센터(부지 2,000평, 건물 200평, 3층)를 경제자유구역외 지역인 현 주둔지 부대에 설치토록 협의하였다.

송도신항~인천항 도로 개통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항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6차선 도로가 오는 2011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151층 쌍둥이 빌딩(가칭 인천타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송도국제도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송도신항과 인천항을 잇는 길이 5.5km, 폭 6차선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송도 6·8공구(192만평) 매립사업과 연계해 송도신항에서 서쪽으로는 인천항과 동구 송림동, 김포신도시, 남쪽으로는 시화지구와 화성 봉담으로 이어져 앞으로 240km의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교육청 소식

혁신 최고 5단계 진입 쾌거

인천시교육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부처의 전반적 혁신수준을 측정하는 2006 하반기 정부혁신지수(GII : Government Innovation Index) 진단결과가 혁신의 최고단계인 5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웹을 활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시·도 및 지역 198개 교육청을 포함한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혁신지수는 혁신활동 및 실행도를 측정하는 ‘혁신활성화 부분’과 조직효율성 및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는 ‘혁신성과 부분’으로 나누어 진단하며, 혁신 5단계는 혁신의 체질화와 시스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정착기로 조직내에 혁신문화가 내재화되고 교육전반에 혁신성과가 창출되는 최고단계를 말한다.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말은바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는 실무자들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의지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고, 각종 정책 추진시 교육공동체(학부모, 학생, 교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단위학교 교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의 | 시 교육청 교육지원과 홍보팀 ☎ 420-8225

연세대 총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협조 당부



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8일 정창영 연세대총장, 손흥규 부총장, 서승환 기획실장 등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의 목적과 최근 연세대와 하버드-스미소니언이 송도 국제화복합 단지 내에 공동으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연세·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원’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박의장은 “연세대의 비전대로 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 시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하버드대학과 스미소니언 미국 국립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천체물리연구원은 세계 최대의 천문학 연구조직으로 이 분야 최고의 학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전 지구적인 위성추적시스템과 중대형 우주망원경들을 포함한 각종 우주계획들을 주도해 왔다.

가스누출사고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 최근 송도LNG저장탱크 메탄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진상 조사를 위한 ‘인천 LNG생산기지 가스누출 사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가스누출사고 경위와 원인 규명, 저장탱크·가스



관리 실패, 저장탱크 안전대책, 가스누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위구성은 위원장에 이재호 의원, 제1간사 배영민 의원, 제2간사 지정구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박승희, 김용재, 김용근, 정종섭, 강석봉, 이병화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하여 5월 14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조례정비특위 전남의회 비교시찰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숙)는 지난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이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한바 있는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해 조례정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양시도의회간의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조례특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라남도의회 조례특위 운영방법, 특위의 운영성과 및 실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청취했다. 전남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3개월간 운영되어 조례 224건중 57건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총 21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조례특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는 지방의회 의원발의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우리시 의회의 방문을 통해 두 시도의회간 만남은 서해안권 시도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소비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지방소비자행정 워크샵에 참석해 새로운 소비자행정 의회와 집행부-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란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간소비자단체 활동경력을 지닌 광역의원으로서 이

서 해안 권의 지방 의회인 인천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이 모색되는 만남을 가졌다.

자리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 관계와 기능에 대해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 및 견해와 사례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반튼주와 자매결연의향서 체결

강석봉 산업위원장은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반튼(BANTEN)주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경제·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 논의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동남아시아 무역 발원지이자 인도네시아의 중심도시인 반튼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도시의 발전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반튼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인도네시아 반튼주정부 청사를 방문 라투 아투 조시아 반튼주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튼(BANTEN)주정부와 인천시간의 자매결연의향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항구도시인 반튼주는 세계적인 리조트시설이 갖추어진 관광산업의 선진도시로, 여건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있어 우리시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한편 방문단은 지난달 5일에 자카르타의 땅거랑 도지사를 예방하였고, 7일에는 마카사르시를 예방하여 인천시와의 우호교류 협력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자카르타와 마카사르시의 주요 산업 및 항만을 시찰하고, 슬라웨시섬 해안 녹지 보전 및 개발실태를 견학했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440-6054



멕시코 한인후손 직업훈련생 초청·격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우리나라에서 6개월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멕시코 한인후손들을 초청했다. 이번 초청행사는 멕시코 한인후손들에게 고국의 따뜻한 정과 한인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5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될 멕시코 메리다시와의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시를 방문한 멕시코 한인후손들은 송도국제도시 홍보관 등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시 의회가 마련한 오찬을 가졌다. 기

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민족, 한 핏줄임을 확인하고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멕시코에 돌아가더라도 동포사회에 우리의 말과 글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격려했다.

이에 대해 한인후손을 인솔하고 온 유카탄주 무지개학교 김무선 교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손들이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멕시코 한인후손 국내직업훈련’은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의 과정으로 IT기술, 전자제품수리, 자동차정비, 용접·배관 등 4개 분야에 29명의 멕시코 한인후손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수료식을 갖고 3월 1일 멕시코로 돌아갔다.

일어나라, 잠자는 인천의 역사여...

인천의 뿌리를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드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시간에 묻혀 잠자는 역사에 따스한 아침의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곳이다. 보다 나은 미래의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 우리가 머문 자리의 과거 속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최근에 ‘인천역사문화총서’ 8종을 추가로 발간하였다.

글 · 사진 김애란 남동마당 기자

시장공관에서 역사자료관으로

중구 송학동 응봉산 기슭에 위치한 역사자료관은 자유공원과 옛 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이웃하며 개항 후 인천 한 세기의 시대적 편린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근대화의 물결이 요동치던 인천항을 굽어보고 있는 역사자료관은 정갈하게 드리워진 옛 한옥과 아담하고 소박한 정원의 풍경이 정겹다.

역사자료관은 그 역사 자체가 곡절이 많다. 아름다운 정원을 끼고 있어 일제시대에는 일본인 사업가의 저택이었다가 광복 후에는 동양장이라는 서구식 레스토랑으로, 한때는 송학장이라는 사교클럽(무도장)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 1965년 인천시에서 매입하여 한국식 건물로 개축해 시장공

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공관을 거쳐 간 역대 시장은 모두 17명으로, 그들은 여기서 인천항을 바라보며 인천발전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제 이곳은 역사자료관으로 시민의 염원을 담은 미래발전의 근간이 되는 역사편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사편찬위원회 ·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이라는 새로운 문패를 달게 된 것은 2001년 10월 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부터이다. 265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출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오면 오누이 마냥 다정한 강덕우 전문위원(문학박사)과 강옥엽 전문위원(문학박사)이 반겨준다. 소박하지만 활기찬 미소로 시골집에 온 듯,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는 친근함이 배어 있는 두 강 박사는 금방 인천 역사이야기 삼매경에 빠져들게 한다.

시민위한 역사이야기 사랑방

인천시역사자료관은 얼마 전에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 24 ~31호 8종을 발간했다. 2003년 1호를 발간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4년에 걸쳐 총 31권의 인천자료집이 축적된 것이다.

인천사의 정립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성과 집적, 자료들의 재정리를 통하여 인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의 발간취

지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민이 보다 쉽게 인천의 역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미발굴되었거나 부족한 인천 자료를 주석을 덧붙여 정리,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역사

문화총서는 ‘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 개항장 풍경’, ‘조선시대 인천지역의 생원 · 진사시 합격자들’, ‘역주 교동군읍지’, ‘역주 선조강화선생일기’ ‘역주 한국이대항실세’, ‘인천역사 3호-인천경제의 재조명’,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 이다.

이중 ‘인천 개항장 풍경’은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여러 개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인천의 개항장 풍경을 담고 있으며, ‘역주 한국이대항실세’는 1905년의 러일전쟁,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시대상황이 반영되어있다. 이 책은 비록 일본인의 시각으로 쓰였지만 인천과 부산항의 경제사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적 의미를 갖는다.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인천의 정체성이 바르게 표현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강옥엽 전문위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인천시의 자료가 의외로 부족하다고 전한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중요한 역사의 의미를 잊지 말고 되새겨야하는 작업이 역사자료관의 중책이다.

현재 약 5000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관은 다양하게 시민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근대의 이민과 인천>(2004) <멕시코 이민 100년의 회상>(2005)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2006) 등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하와이로 간 인천 사람들>(2004) <인천 축항의 역사>(2005) <광고로 보는 인천근대>(2006) 등의 테마로 사진전을 3회째 열었다. 또한 2개월에 1회씩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수, 지역원로, 향토사가, 전문가 및 소장학자들을 초빙하여 향토사 강좌를 21회째 운영하고 있다.

뿌리 깊고 넓게 자리매김 할수록 그 나무는 바람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세계 속에 인천은 묻혀졌던 역사의 발굴과 자료의 대중화 보급으로 더욱 알찬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 시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천의 미래가 인천시역사자료관에서 태동되고 있다. 🌱

인천시역사자료관은 역사문화연구실 사무실(겸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자료실, 열람실, 연구실, 역사사랑방 등으로 구성돼 있고 논문, 단행본, CD-Rom 등 약 5,000여 종의 인천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휴관일이지만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 국가 공휴일과 기타 자료관 사정에 의해 임시 휴무한다. (문의 : 440-3497)



《인천역사문화총서》 1~31호 목록

- ① 인천의 역사와 문화
- ② 인천의 역사와 문화(영어)
- ③ 인천의 역사와 문화(중국어)
- ④ 인천의 역사와 문화(일어)
- ⑤ 인천사자료집
三國史記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仁川記事
- ⑥ 인천의 섬
- ⑦ 옛날 옛적에 인천은
- ⑧ 美軍政期の 인천자료
- ⑨ 譯註 仁川府邑誌
- ⑩ 인천역사 - 인천사의 재조명 (1호)
- ⑪ 譯註 仁川事情(靑山好惠)
- ⑫ 譯註 仁川開港25年史(信夫淳平)
- ⑬ 譯註 仁川開港25年史(加瀬和三郎)
- ⑭ 近代의 移民과 仁川
- ⑮ 인천의 산과 하천
- ⑯ 근대문화로 보는 한국최초 인천최고
- ⑰ 高宗時代 인천자료
- ⑱ 譯註 富平郡邑誌
- ⑲ 인천역사 - 인천 문학의 재조명(2호)
- ⑳ 譯註 인천항(1931)
- ㉑ 譯註 인천항토지(1932)
- ㉒ 멕시코 이민 100년의 회상
- ㉓ 인천 築港 사진도록
- ㉔ 인천의 길과 시장
- ㉕ 인천 개항장 풍경
- ㉖ 조선시대 인천지역의 생원 · 진사시 합격자들
- ㉗ 譯註 喬桐郡邑誌
- ㉘ 譯註 先祖江華先生日記(1574)
- ㉙ 譯註 韓國二大港實勢(1905)
- ㉚ 인천역사 - 인천 경제의 재조명(3호)
- ㉛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



축구실력과 국가브랜드

글 · 안종복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단장



지난해 한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웠고 세계 모든 축구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독일 월드컵이 이탈리아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16강 진출을 염원했던 한국 축구는 끝내 유럽축구의 벽을 넘지 못하고 1승1무1패로 16강의 문턱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선에서 우리와 비겼던 프랑스가 최강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고, 2002 월드컵에서 안정환의 헤딩골로 우리에게 패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우승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조금만 운이 따라주었으면 한국축구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한껏 고무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0년 이상 현장에 있었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직접 대표단의 일원으로 3전 전패의 쓰라림을 함께했던 경험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히 월드컵을 돌아보려 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축구를 바르게 알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 경기력 향상으로 1986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부터 2006 독일 월드컵까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는 호주가 아시아로 편입되어 본선진출 경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리그가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고 유럽파 선수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예선 통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아시아에서 본선진출 경쟁국은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호주이고 중국과 북한 정도가 변수라고할 수 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팀의 수준이 비슷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월드컵에서 16강, 8강을 목표로 하려면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같이 톱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최소 10여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특히 세계수준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했듯이 유럽 남미 선수들과 경합할 때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은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을 돌파했고, 기술과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는 자신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한국축구가 세계수준에 근접하는 빠른 길은 가능한 많은 선수들을 톱리그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월드컵이 열리는 때면 모두가 경기장이나 TV 앞에서 붉은 악마들과 함께 16강을 외치며 열광하지만 정작 병역문제나 세제 문제 등 한국 축구의 현안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

축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축구가 갖는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건국 이래 과연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이처럼 열광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적이 있었는가?

앞으로도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국민들은 여전히 붉은 옷을 입고 길 거리에 모여 16강, 8강을 염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무인 병역을 기피해서도 안되고, 축구선수만 면제해 줄 수도 없다. 다만 병역 문제로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가장 좋은 시기(20세~23세)를 놓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협회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해외진출이 가능한 선수들은 병역을 연기해주고 그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한 후에 군복무기간만큼 유소년을 지도하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병역문제가 해결되어 유망한 선수들이 일찍 선진축구를 익힌다면 제 2의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은 물론 차범근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16강, 8강을 넘어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갈수 없는 곳이란 우리에게겐 없어
보이는 길 밖에도 세상은 있어
언제나 식지 않는 내 마음이 있어
자유로운 내 뜻을 막을 순 없어

언제, 누가 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뜨거운 정열과 용기를 갖고 있으면 불가능은 없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침묵의 살인자’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부터

글 · 박영훈 인천의료원 내과



“선생님, 이거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혈압재면 정상인데 여기만 오면 올라가네요?”

최근 전자혈압기의 보급으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도 많고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혈압을 자주 측정하는 환자의 경우 외래혈압과 차이가 날 때 고혈압치료에 도움은커녕 혼선만 초래하기도 한다. 전자혈압기의 원리는 맥박에 의한 피부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진동법(oscillometric method)을 이용하는 것으로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측정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혈압측정시 가장 주의할 점은 팔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측정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가정 혈압의 측정은 주 3회, 하루 2회가 권고 되며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경과 후 배뇨 이후에, 저녁에는 취침 전에 안정 후 측정하는 것이 좋는데 한번 혈압 측정 시 3회 연속 측정하여 평균치를 적정혈압으로 보아야 한다.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오른다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진료실에 들어오면 긴장되어 혈압이 오르거나 혈압을 재려고 하면 긴장하여 혈압이 상승하는 소위 ‘백의고혈압효과’이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 심하게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혈압과 진료실혈압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백의효과’를 한번쯤 의심 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24시간활동성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부 환자들은 자가 혈압 측정으로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거나 몸 상태가 나쁠 때만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환자들에게 고혈압치료의 필요성과 약제의 장기투여에 따른 불안감해소 및 부작용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해주지 못한 의료진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고혈압이란 병은 약 한번 먹고 낫는 일과성 혹은 급성 질환이 아니며 완치가 불가능하고 혈압을 약물로 조절하여 유지하는 만성적인 생활습관 병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절을 위해서 약을 평생 사용 하는 것이지 약물을 시작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시켜야한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환자의 경우에서는 약을 끊을 수도 있게 되는데 과체중 혹은 짠 음식을 즐겨먹는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거나 소금의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조절(저지방식이)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비만환자의 경우, 체중을 약 10~20kg 정도 감량하면 혈압약물 한 가지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혈압이 심하지 않은 일부 환자의 경우 앞서 열거한 방법만으로도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으며 약을 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양식의 개선으로도 혈압이 조절 되지 않으면 고혈압약제를 복용해야한다.

끝으로 고혈압은 무증상의 소리 없는 살인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우선 생활습관의 개선부터 시작하도록 해야겠다. 🐦

‘소녀들의 바다는 진종일 해조음만 가득 찬 소라의 귀’

- 韓何雲의 작약도

글·김학균 시인



함경도에서 태어나 서울을 떠돌고 전라도를 휘돌아 인천에 정착, 김포에 묻힌 한하운 시인. 문동병이라는 천형을 온 육신으로 앓다가 1975년 2월 28일 생을 마감한 (사망 당시 간암) 한 시인의 인동초 같은 삶의 과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꼈다. 결정이 콩알같이 스물스물 몸의 이곳저곳에 나고, 검은 눈썹은 자고 나면 없어진다. 코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고 말은 코 먹은 소리다.’ 한하운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에 나오는 초기의 나병 증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다. 이때 나이 17세의 한시인은 ‘길 위에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인으로 서 파란만장한 생의 문을 닫기까지 문동이 나그네의 황토길, 전라도 길을 슬픈 구름처럼 흘렀으니 말이다. 이러한 방랑여정을 엮은 회상기가 2번째 시집 「보리피리」라고 서(序)를 장식했지만 슬프게 아름다운 선율은 아직도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서 울리고 있으며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본다. 천형의 시인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시였던 것이다. 고통의 극한으로부터 자유의 동경이 역설로 표현된 ‘파랑새’가 그러 하듯이.

인천은 단지 시인이 정착한 곳으로만 그냥 끝났을까하는 필자의 은근한 호기심이 고개를 드는 것은 어쩐 일인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있으니 시(詩)를 통해 인천속으로 슬픈 구름처럼 한번 그렇게 흘러 보자.

<작약도>

작약꽃 한 송이 없는 작약도에
소녀들이 작약꽃처럼 피어

갈매기 소리없는 서해에
소녀들은 바다의 갈매기
소녀들의 바다는
진종일 해조음만 가득 찬 소라의 귀

소녀들은 흰 에이프런
귀여운 신부

밥짓기가 서투른 해
바다의 부엌은 온통 노랫소리

해미가에 흥겨우며
귀여운 신부와
한백년 이렇저렇 소꿉놀이
어느새
섬과
바다의
소녀들은 노을 활활타는 화산불
인천의 밤은 잠들고
소녀들의 눈은
어둠에 반짝이는 별, 별빛
배는 해각에 다가서는데
소녀들의 노래는 알로아에
선희랑 민자랑 해무속에 사라져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알로아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안녕
알로아에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시인의 시 중에 인천에 관한 시는 이 한 편뿐이다. 후대에 와서 ‘작약도’를 노래한 젊은 시인들은 많지만 해방공간의 암흑시기에 쓴 시는 없다(?). ‘종이집과 하늘’의 저자 ‘이인석’ 시인의 시 중 ‘하루를 살기엔’ 이란 시 속에서 잠시 나오기는 하지만 작약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는 이 한편이 아닌가 싶다.

작약도는 숲이 울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땀감으로 수난을 겪고 1866년 ‘병인양요’와 5년 후 ‘신미양요’ 때 ‘보아제 섬’ ‘우두 아일랜드’라 각각 불려졌다. ‘물치도’라는 우리 순수명칭이 부끄럽게도 일본 사람들이 ‘작약꽃’ 같다하여 부르게 된, 가깝고도 먼 ‘만석동 산3번지’의 섬. 시인 한하운은 소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별을 노래 했을까. 아마도 광복 즈음 화수동의 ‘이중문’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고아원이 설치되었던 곳이라(후 6·25 동란에 없어졌다) 그리 노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에 자리잡은 ‘신명보육원’은 전 재산을 북한 정권에 몰수 당한 50년도에 월남하여 ‘성계원’을 거쳐 나환자 자녀 복지시설로 시작해 오늘에 이른 시설이다. 55년의 역사를 지닌 그곳은 ‘한하운’의 사랑 바로 그것이다.

1919년 유복한 집안의 2남3녀 중 장남으로 함흥 보통학교, 이리농림학교, 일본 성계고등을 거쳐 북경대 농학과를 다닌 시인이 얼굴없는 시인으로 문단에 나와 천하에 던진 파장은 곧 한국의 나그네 시인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내 땅에 산 시인이 눈물의 언덕을 넘으며 피리를 불고 있다. 보리피리를... 🐦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사례 두 아이의 어머니 나성실 씨는 혼인 생활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었다. 남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재산을 하나 둘 처분하였고, 살고 있는 집도 아내 몰래 담보로 잡혀 사업자금에 충당하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설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이 언제 경매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성실씨가 현행민법 하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부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성실씨와 같이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하지 못한 부부의 일방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막기 위해서 현행 민법에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혼인 전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부부재산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해 두거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해두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나성실씨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재산에 대해서나마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분할을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현행민법 하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성실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자신명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방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거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경우에는 그 타방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성실씨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도 남편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주거용 건물을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상당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별거해 온 경우에는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성실씨는 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부부의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부부들이라면 부부재산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약정해서 등기해 두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혼인 중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글 · 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861-5511)

우리딸 '먹보'

막내 딸 생일날 케이크를 잘라 먹는 모습입니다.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해서 먹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오래된 추억일 뿐이지만 지금은 부쩍 커서 저를 기쁘게 해주는 딸이 너무 소중하답니다.

김옥분 | 남구 학익동



졸업을 하고 모인 악동들

코 훌리고 까불던 유치원생활을 한지가 엇 그제 같은데 벌써 1학년을 졸업하고 어엿한 2학년의 언니 오빠가 된 7인조 악동들 ~ 올해에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만월초등학교 핫~탕.

김승용 | 강화군 불은면

김치~찰칵



5인 5색 포즈

이번 어머니 생신 때 경북 영주에 있는 시댁에서 조카들과 함께 김~치! 가운데 모자 쓴 아기가 제 딸입니다. 다들 과자 하나씩 입에 물고, 각각각생의 표정과 포즈가 재미있죠? 경운기 위에서 사진 찍었어요.

강희원 | 연수구 동춘2동



사람 위에 사람

함께라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아이들보다 더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은 두 녀석의 만만한 이모부지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조각 작품 위에 덩싹 누운 용감한 삼총사에게 박수를 짹짹 ~~~

김동주 | 남구 도화동



보고싶은 선생님

구월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졸업한지가 2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들 잊지 않으셨죠? 저 홍석이기도 곤충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박홍석 | 남구 주안4동



우린 경극 배우

이번 설에 할머니댁에 모인 꾸러기들. 두 녀석이 할머니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경극배우 같은 얼굴로 밖으로 나왔지요. 손을 들고 벌을 세웠는데 뿔도 모르는 세 살짜리 막내는 좋아라며 누나들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유진 | 부평구 산곡3동



사랑의 아리아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서 하루를 즐기고 외손자 외손녀 노래를 시켰는데 손녀아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서있고 손자는 신이 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는 이사진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사랑의 아리아'.

손자는 지금 군복무중이고 손녀는 대학원 신입생입니다.

서경애 | 연수구 선학동



친척오빠 졸업식

친척오빠의 결혼식에 큰아버지가 참석 못해서 아빠랑 저랑 대신 갔었어요. 14년전 사진이네요. 이날 졸업식 끝나고 사진을 찍는 우리들. 전 사진찍는게 좋은데 오빠는 사진찍는 게 싫었었나봐요. 요즘 졸업식은 10년전처럼 안하니까 서운한 거 있죠. 그리워서 사진 한 장 올려봅니다.

오영미 | 남구 학익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에버 브라스밴드의 뮤직스토리



일시 _ 3월 17일(토) 오후 3시
티켓 _ 전석 6,000원

동유럽 명문 음대 출신들로 구성된 에버 브라스밴드는 놀라운 연주 실력을 갖춘 브라스밴드이다. 에버랜드에서의 장기공연을 통해 한국 관객에게 친숙한 이 밴드는 러시아 국립오페라극장, 스위스 국제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순회공연을 통해 본고장 밴드 특유의 파워풀함과 자유분방함을 보여 주었다.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문의 _ 760-3455~6 www.iecs.go.kr

변검과 중국 기예단 공연



회공연하고 있는 실력파 기예단이다.

일시 _ 3월 17일(토) 오후 2시
티켓 _ 무료

장소 _ 인천한중문화관 공연장
문의 _ 760-7860-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월 5	6	7	8	9 인천시립교향악단 시벨리우스 서거50주년 기념음악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B-Boy댄스 & 걸즈합합댄스 연수구청 대강당 오후 7시30분 / 무료	10 인천오페라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만원, 1만원 ☎ 429-0255 매직콘서트 '꿈의 대화' 오후 3시, 7시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2만원 ☎ 보물상자(080-550-2020)	11 매직콘서트 '꿈의 대화' 오후3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2만원 ☎ 보물상자(080-550-2020)
12	13	14	15 미추홀오페라단 <꽃피는 봄이오면>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만원, 2만원, 1만원 ☎ 435-1281	16	17 인천시립교향악단 <청소년문화제합마당> / 오전 10시 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천원 / ☎ 420-2781 에버 브라스밴드의 뮤직스토리 오후3시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 6천원 ☎ 760-3455~6	18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교과서야 사랑해!> 오후 4시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 i-신포니에타 834-1055
 제3회 이상하 조각전 '풍경-나무' 3월 7일(수)~13일(화) 인천신세계 갤러리 조각가 이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조각 방법을 충실히 따르는 작가로서, 조각 재료가 지니는 물질적 속성을 초월하여 물질 속에 인간의 정신과 이념을 불어넣고자 한다. 그는 10여년이 넘게 '풍경'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나무, 구름 등의 소재를 통해 자연에 숨겨진 이상적인 미를 추구한다. <신세계갤러리 3월 전시일정> 2월 23일~3월 6일 신춘기획-꽃 속을 거닐다 3월 7일~3월 13일 제3회 이상하 조각전 "풍경-나무" 3월 14일~3월 20일 박영동 고화전		21	22 인천시립합창단 제105회 정기공연 <봄의 합창 페스티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원, 7천원, 5천원 ☎ 예매 : 엔티켓 1588-2341	23 연수구립관악단 불빛이클래식 해설음악회 연수구청 대강당 / 오후 7시30분 / 무료 구강교육체험뮤지컬 치술맨과 총치맨 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꼬마세상(572-4281)	24 구강교육체험뮤지컬 치술맨과 총치맨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꼬마세상(572-4281)	25 구강교육체험뮤지컬 치술맨과 총치맨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꼬마세상(572-4281)
	28	29	29	30	31 인천시립무용단 <균형-박으로 창으로 내어 안을 보다>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원, 5천원 ☎ 420-2788	4월 1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라이어 라이어> 오후 4시 /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 ☎ i-신포니에타 834-1055 인천시립무용단 <균형-박으로 창으로 내어 안을 보다> 오후 4시 / 1만원,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420-2788

화이트데이 매직콘서트 꿈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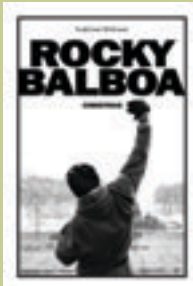
일시 _ 3월 10일(토) 오후 3시, 7시 / 11일(일) 오후 3시

장소 _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전석 2만원

문의 _ 교육극단 보물상자(080-550-2020)

학산수요영화초대



'하품학교'라는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남구학산문화원과 멀티플렉스시네마 프리머스 영화관(주안 위치)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학산수요영화초대'를 진행한다. 최신 개봉 영화 중 화제작을 골라 상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즐거운 문화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시 _ 3월 14일(수)

장소 _ 학산문화원 회원 중 선착순 30명 (1인 2매)

티켓 _ 무료

문의 _ 866-3993, 880-4763



인천시립무용단 제60회 정기공연



균형-창을 내어 안을 들여다보다

<균형-창을 내어 안을 들여다보다>는 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우리 고유의 소리가 가미된 신명나는 공연이다. 우리나라 춤의 큰 분류를 이루는 경기·인천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을 소리꾼 왕기철과 함께 지역별 고유의 춤 빛깔을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다. 특별히 초청된 도살풀이의 김운선, 지전춤의 김진홍 등 춤 대가들을 통해 한국 춤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춤과 소리에 영상이 더해져 영상과 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연출로 더욱 입체적인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일시 _ 3월 31일(토) 4월 1일(일) 오후 4시

티켓 _ R석 10,000원 S석 5,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420-278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74회 정기공연



시벨리우스 서거 50주년 기념 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은 북유럽의 위대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서거 50주년을 기념하여 교향시 <핀란드야> 작품.26을 비롯해 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작품.47 등 그의 대표곡들을 연주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첸 주오황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이 협연하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조국을 표현했던 시벨리우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_ 3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_ 420-2781

인천시립합창단 제105회 정기연주회



영상이 있는 해설 음악회

상임지휘자 윤학원 감독의 작품해설과 영상이 깃들여진 이번 음악회는 미사곡과 흑인 영가곡, 영국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_ 3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티켓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_ 420-2784

인천시립예술단 봄맞이 공연

시립박물관 사진전 시간이 멈춘 종묘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문화재청 종묘관리소와 공동으로 종묘의 옛 모습과 종묘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시간이 멈춘 종묘' 사진전을 개최한다. 종묘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자료 7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총 세 부분으로 꾸며진다. 1부 [시간이 멈춘 종묘]에서는 1920년경 종묘 정전 등 옛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비교하며 2부 [하늘과 맞닿은 종묘]에서는 장중한 건축미와 제례의식을 느낄 수 있는 종묘의 경건함을 감상할 수 있다. 3부 [종묘와 사람들]에서는 조상의 발자취를 찾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종묘대제와 관련한 영상자료를 감상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을 위한 설명회가 매일 오후 4시에 개최돼 종묘의 역사와 건물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기간 _ 2월 16일(금)~3월 16일(금) 1개월간

장소 _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_ 인천광역시립박물관
(http://museum.incheon.go.kr, ☎ 440-6123)

만년 ‘문학소녀들’의 행복한 글쓰기 굴포문학회



말과 글은 한 몸이다. 그런데 말은 술술 잘 나오지만 글로 표현하려면 멈칫거리진다. 글이 부담스러워지면서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세상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글쓰기가 일상이고 그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 그들은 문학동아리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자신의 작품이 담긴 책을 출판한다.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입춘을 গত
지난 날씨는
쌀쌀한 바람
속에 따뜻한
햇살을 담고 있어
서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간절히
봄을 기다린 것은

아닌 데도 열었던 땅들이 몸을 푸는 그 설레임이 전해지고 있었다. 봄이 온다는 것이 마냥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마음도 일렁거렸다. 아마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이 참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굴포문학회 회원들을 만났다.

여성문화회관 문예 창작반에서 문광영(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씨 지도를 받던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굴포문학회는 1994년 3월 3일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13호까지 나온 동

인지 ‘굴포문학’ 창간호를 95년 2월 15일에 세상에 내놓는다.

회원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중년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꽃다운 20대에 들어와 글을 쓰다보니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 듣기에 참 좋다. 대부분 주부이지만, 글쓰기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 동아리 안에서 시·수필·소설·아동문학으로 분야가 나누어지는데, 시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정기행사로 1년에 두 번, 문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데,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문학가들은 굴포문학회를 한 번쯤은 다녀갔다. 해마다 두 번씩 가는 문학기행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은 국내로만 다니다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은 해외로 나가면서 친목도 다지고 있다.

굴포문학회에 얹힌 일화 좀 들려달라고 했더니, 창간호가 나왔을 때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에 실어달라고 찾아 갔던 얘기를 했다. 담당 기자는 창간호가 마지막 호가 되는 동아

굴포문학회만의 특별한 향기는 무엇일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전해지는 ‘행복’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리들도 많다면서 ‘굴포문학’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해서 내색하진 않았지만 많이 서운했다. 세월이 흘러 그 기자에게 13호 ‘굴포문학’을 전해줬더니 대견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고 한다.

지도교수 문광영 씨를 중심으로 현재 4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두 여성이다. 남성을 제외한 것은 아닌 데 여성들만 모이다 보니 이제는 자격요건이 여성으로 제한되었다. 전국 동인지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한 경력을 자랑하면서 매년 나오는 ‘굴포문학’의 내용이 좋다고 그



애정을 각별하게 드러낸다. 회원 중 절반정도는 등단을 했고, 일부러 등단을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들도 그 실력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회장직을 떠난 후, 전임회장들은 ‘봄온(봄은 온다의 약자)’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문학회를 뒤에서 후원해 주고 있다. 굴포문학회가 든든한 생명력을 지니고 자랄 수 있는 힘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

봉사활동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데, 음식을 장만해서 다운중후군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놀아주고, 휠체어도 밀어주면서 그늘진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 모든 것도 그들의 글 속에서 삶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태어나리라.

현재 1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이수 씨는 글쓰는 일은 상상력이 마르지 않는 일이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글을 쓴단다. 그리고 굴포문학회는 블랙홀처럼 한 번 들어오면 빠져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정서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소설가 김진초 씨는 글쓰기는 자기를 반성하고, 남을 이해하면서 폭넓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굴포문학회만의 특별한 향기는 무엇일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전해지는 ‘행복’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문의_문광영교수 540-1215, 정이수 회장(glmani3@hanmail.net)

“우리가 살 미래를 미리 다녀왔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굴포초 4학년 강윤구, 황준상, 장수빈, 김지수, 김미소 어린이와 능허대초 4학년 김문찬, 학익초 2학년 안진석 어린이는 연구구 송도동 7번지에 우뚝 선 ‘갯벌타워’를 보자마자 함성을 질렀다. 한국경제의 희망을 품고 우뚝 선 상징과 마주하면서 변화의 힘찬 고동소리를 느낀 듯하다.

IFEZ의 가능성은 ‘무한’

송도국제도시 초입에 세워진 갯벌타워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까지 올라가자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이다. 홍보관에 들어서는 순간 일곱 친구들의 눈앞엔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펼쳐진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개 권역을 1천~3천분의 1로 축소한 모형전시물이다.

그 모습이 너무 정교하고 화려해서 마치 미래의 경제자유구역 도시 한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가슴이 쿵덕댄다. 친구들의 ‘국제도시’ 기행을 안내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진선 씨의 설명이 시작된다.

“2003년 8월 11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데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예습을 하고 온 듯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진선 씨의 심도 있는 설명이 이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 위치’ 예요. 13억 인구의 중국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데다 인천공항에서 3시간 반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인 동북아 51개 도시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첨단 제조단지들이 가까워 첨단 산업인력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만든 서울 여의도 면적 18배의 첨단 국제도시라니... 그 방대한 스케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건설된 송도지구에서는 외국 기업과 금융 관계자들이 각종 국제회의를 열고, 계약을 맺는 국제비즈니스와 교역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인천대와 연세대 등 대학은 물론이고 산업 연구시설, 첨단 기업 등이 모여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도 넘쳐날 것이다.

“미래 이곳의 주역이 될래요”

최진선 씨가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작은 단추를 누르면 해당 건축 모형물이 번쩍 번쩍 빛을 내며 올라와 친구들에게 선을 보인다. 수빈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최고층인 151층의 ‘인천 타워’를 유난히 자랑스러워하고 지수는 12.3km의 인천대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관심을 보인다.

다음은 영종지구. 영종지구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4,184만평의 친환경적인 복합 공항도시로 조성된다. 공항 종사자와 방문객을 위한 주거 편의시설, 물류 상업 유통시설을 갖춰 명실상부한 세계의 관문으로 만든다.

“앞으로 공항이 훨씬 넓어지고 멋져질 것 같아요.” 설명을 듣던 미소가 이름처럼 예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어서 각종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첨단 화훼단지, 국제금융의 거점이 될 청라지구의 미래 모습도 모형물을 통해 엿보았다. 무한한 에너지와 천가지 표정을 지닌 청라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다 만들어지고 난 후를 상상하니 막 가슴이 뛰어요.” 미래 이곳의 주역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는지 준상이, 문찬이, 윤구의 눈빛이 다부지게 빛난다.

오늘 온 친구들 중 누군가는 세계가 주목하는 땅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0여 분 가량의 영상물 상영과 PDA정보검색기 이용은 사정상 다음으로 미룬다.

다음 코스는 전망대. 문을 열고 나가자 바람이 세차다. 오늘 전국적으로 불청객 황사를 동반한 바람이 부는데다 송도에서, 그것도 21층에 올라와 있으니 매서운 바람의 칼날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탁 트인 가슴으로 눈앞에 펼쳐진 송도지구를 끌어안는다. 막내 진석이까지 꽤 진지하게 송도신도시 개발현장을 바라보더니 “여기가 정말 바다였어요?”라고 되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지금 친구들이 서 있는 곳은 불과 20년 전 갯벌을 터전삼아 사는 조개와 갈매기가 어울려 사는 바다였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송도국제도시는 더 많은 빌딩과 사람들도 들어차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이기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문찬이, 윤구, 미소, 준상이, 수빈이, 지수, 진석이 일곱 어린이의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또한 기대되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신흥보관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나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관람할 수 있다.

- 관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람료 : 무료
- 예약 : 관람 2일전 인터넷(www.ifez.go.kr), 전화이용
-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팀 (☎ 453-7074~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흥보관 (☎ 453-7884)

혐오시설이 ‘행복공간’으로 변신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혐오시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웰빙공간. 극단을 달리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기피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친근한 이웃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글·김미희 시 환경시설공단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24시간 열린 공간 ‘환경시설공단’

테니스 동호회의 방형민(연수구) 씨가 10년째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연습장이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승기사업소 내 마련된 테니스 연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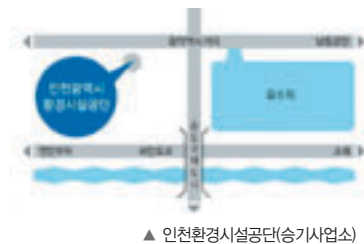


“여기가 하수처리장인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내 집처럼 편하게 와서 운동하다 가니까 좋은 곳이라는 인식만 있지요.” 40대 방씨가 20대의 체력을 갖도록 건강을 챙겨주는 곳이다.

환경시설공단(승기사업소)에는 테니스 연습시설을 비롯해 축구장도 마련돼 있어 주말마다 조기축구 동호회들 간의 예약다툼이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30분 코스의 산책로, 잉어들의 보금자리인 연못 등 아담한 소공원도 마련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들어와 쉴 수 있도록 개방된다. 이렇다보니 주말마다 휴일마다 단체에서는 행사 개최장소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놀이·휴식공간으로 인기만점이다. 웰빙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환경시설공단은 실상 우리가 버린 폐수와 오물을 처리하는 필수 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이다. 가끔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기도 하는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사랑까지 받고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환경시설공단이 운영하는 6개 사업소에는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공원, 견학시설(4월부터) 등이 마련돼 있다.

문의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승기사업소 (899-0200)
<http://seunggi.incheon.go.kr>



▲ 인천환경시설공단(승기사업소)

살아있는 학습장 ‘자원환경센터’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매립지 위에 우뚝 선 청라자원환경센터는 봄, 가을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 인기만점이다. 시민체육시설로, 시민공원으로 애용되고 있는 자원환경센터는 우리가 버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물들을 자원화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시에는 청라와 송도 두 곳에서 자원환경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경우 전체시설 중 70%정도가 시민 편의시설과 친환경시설로 꾸며져 있다. 천연잔디로 만든 축구장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드, 탄성포장 재질로 설계한 육상 트랙, 농구장, 배구장 등 시민공원으로도 손색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열대식물원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소각해 발생한 열로 아름다운 꽃들과 선인장들을 키워내고 있다. 또 수심 80m의 생태연못과 생태자연학습장이 있어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폐기물의 투입과정에서부터 처리되기까지의 주요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재활용 교육과 환경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송도자원환경센터 역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스킨스쿠버, 인공암벽, 스쿼시, 볼링장 등이 조성돼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교통이 좋지 않지만 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하루 이용객이 350명~400명 정도에 달한다. 그밖에도 바다가 보이는 광장, 지압마당, 자전거 산책로, 카페테리아 등 가족공원이 마련돼 있다. 하루 500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하루 2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견학할 수 있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

- 송도자원환경센터 (890-7400)
 - 청라자원환경센터 (584-9595)
- <http://cer.incheon.go.kr>



▲ 송도자원환경센터



▲ 청라자원환경센터





포커스 | 인천대 물류학 박사 배출

동북아 거점도시 인천 물류 전문인의 요람

자연을 닮은 시민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의 난지도 공원에 필적하는 곳이 바로 인천의 ‘드림 파크’. 서구 백석동 바다를 메워 만든 630만평의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최대 광역폐기물 매립지라기보다는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테마공원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 26만평의 야생화단지에는 생태연못, 양묘장, 야생초화원, 온실 등으로 거대화원을 이룬다. 또 시시때때로 국화전시회, 야생화 전시회 등이 열려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아름답게 잘 꾸며진 생태공원은 연간 외국인이 500명 이상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견학프로그램에 3만여명, 시설관람에 4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견학문의에 쉴 틈이 없다.

관리공사에서 진행중인 야생화단지사업은 2008년까지 자연학습관찰원이 조성되고 생태환경체험지구와 습지관찰지

구 등이 추가로 조성돼 살아 있는 식물도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주민체육공원이다.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트랙 등은 누구에게나 열린 웰빙공간이다. 앞으로 야생화단지를 비롯해 레포츠단지, 환경이벤트단지 등을 추가로 조성해 여가와 문화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환경드림파크로 만들어가고 있다. ♡

문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60-9369~372,
www.dreampark.or.kr)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기초시설 내 시민편의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	운영 구분	시민편의시설	문 의
승기사업소	하수처리	견학시설, 체육시설, 소공원	899-0200
가좌사업소		견학시설, 체육시설	578-6220
운북사업소		견학시설, 생태공원	752-0101
강화사업소		견학시설, 게이트볼장	932-8136
율도사업소	분뇨처리	족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572-2876
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소각 및 음식물자원화	축구장, 열대온실, 산책로, 놀이터, 테니스장 등	584-9595
송도자원환경센터		종합스포츠허브, 생활체육시설, 가족공원 및 오락공간	820-7400

차 | 한 | 잔

“지역주민들의 응달샘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박정남 이사장

지난 2월 12일 하수·위생·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창립됐습니다. ‘환경시설’은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시설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쉼터 등을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환경홍보관과 견학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물류학 박사가 탄생했다. 인천대학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15일 산하 동북아물류대학원 졸업생중 2명에게 물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엔 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주인공은 홍명호(56·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혁신관리관)씨와 이원동(46·전 삼표로지스틱스 대표)씨 등 2명이다.

홍씨는 학위 논문으로 ‘균형성과표와 분석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활용한 공동물류센터의 물류서비스 성과측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이 논문은 공동물류센터의 양적 및 질적 평가에 기반을 둔 전략적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공동물류센터의 서비스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홍씨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위원 겸 공동물류·유통단지 개발 전문가로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이씨는 학위 논문으로 ‘덤프트럭 운송시장 특성을 감안한 협업적 차량경로 관리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이 논문은 수도권 덤프트럭 운송시장을 시장원리에 맞도록 협업적 차량경로관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비교분석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씨는 트럭 수송 분야의 전문가로 앞으로 차량 최적 경로 관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가 이처럼 국내 물류학 박사 1·2호를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국내 최초 물류전문대학원인 동북아물류대학원을 설립한 후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물류전문대

학 박사 과정 수료생이 없어 물류 전공자 대부분이 물류학 박사 학위가 아닌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받아왔다.

실제로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물류경영학과와 물류시스템학과를 갖추고 미국 루이빌대학 USP센터, 세인트루이스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 미국 물류협회, 일본 운수정책연구기구, 프랑스 항공정책연구소 등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교류, 해외 인턴 실습을 실시하는 등 국내 물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또 입학한 풀타임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주고, 연구조교와 수업조교에게 추가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지난해 까지 모두 11명의 석사 학위자를 배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외 우수 물류기업, 물류 연구기관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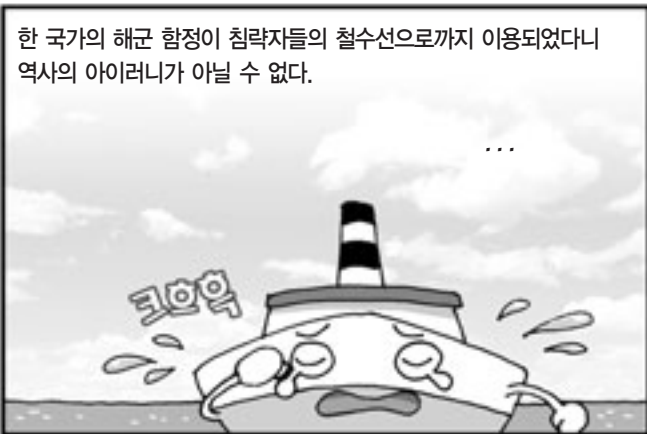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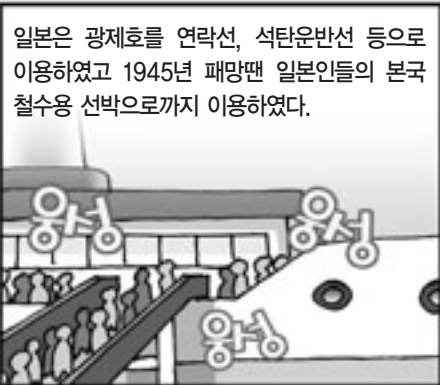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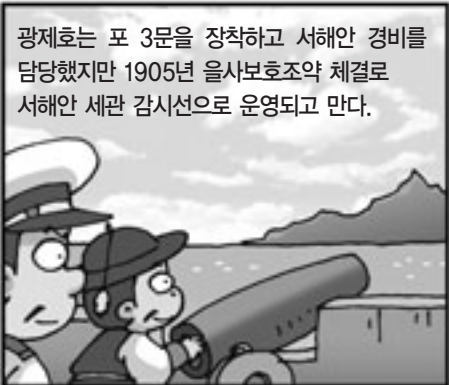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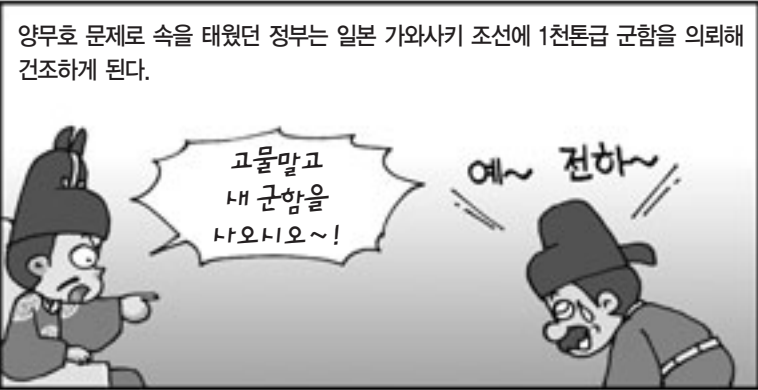


현 문화일보 기자로 인천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이상원 씨가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이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교육팀장인 김충일 씨, 물류관리사협회 부회장이며 물류인적자본연구원장인 지영호 씨와 함께 물류관리사 국가자격 시험대비 수험서 ‘물류관리론’을 발간했다. 이상원 기자는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이사를 맡고 있다. <도서출판 범한 정가 19,000원>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근대식 군함

카툰니스트·이영호 (kaljebi@paran.com)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부르는 정신과 의사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김.종.석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몰랐다. 김종석(金鍾碩) 원장이 이런 분인 줄은 정말 몰랐다. 인천에는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전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아픈 사람들에게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불러 들려주는 신경정신과 의사, 한창 관심이 쏠려 있는 2007년 대통령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해 잡지에 발표하는 신경 정신과 의사. 그가 그렇게 특이하고 유명한 의사인 줄을 전혀 몰랐다.

그날 이쪽이 조금 늦게 시의료원 8층인가, 원장실로 올라갔을 때는 김 원장은 벌써 사진작가 앞에서 멋지게 오페라 아리아를 한 곡 부르고 난 뒤였던 모양이다. 특히 부속실 여직원의 얼굴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즐거운 미소 뒤끝을 보면 방금 전

의 이 방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아마 노래 부르는 장면을 한 컷 찍어 보자는 사진작가의 집요한 청(請)을 못 이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듯 원장은 자꾸 헛기침을 했다. 결국, 근래 여러 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다가 갑자기 준비 없이 목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금 뒤에 실토를 했지만.

소파에 앉아 찬찬히 살펴본 그의 모습은 안경을 낀 전형적인 의사 스타일에, 그다지 크지 않은 체구와 원만형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원칙주의자처럼 녹록하지 않고 다소 뽀족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괴짜스러운 면도, 또 예술적이고 엉뚱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면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고 환자와 격의 없는 의사는, 더구나 평소 좀 위엄을 내보여야 할 인천시의료원 원장으로서, 아마 개원 80년 가까운 역사에 처음일 것이다.

“병원은 꼭 의료 공간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문화, 예술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공간, 문화 쉼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28일 우리 의료원 로비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었던 겁니다. 물론 라 트라비아타를 공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준비중입니다만, 금년 3월부터 환자, 보호자, 일반인 대상으로 시의료원에서 오페라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인간의 병은 대부분이 마음으로부터 근원하는 마음의 병이니 마음을 편하게, 아프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주사나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몇 배 치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노래를 할 때 그 약효가 더없이 크다는 것. ‘억압되고 막혀 있던 희로애락의 감정을 열어 활기를 주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래 부르기라는 것이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억압된 자신을 해방시키고 상처 입은 자아의 감정을 풀어낸다! 다시 말해서 카타르시스!

이 적극적이고 독특한 심리학자, 신경정신과 의사의 말을 다 알아 듣지는 못해도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인간에게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하는 음악, 그것을 이용한 마음, 정신의 치료! 곧 인간의 노래가 인간을 낮게 하는 약이라는 것! 그래서 끝내 테너 가수가 된

의사 선생님이라!

실제 김종석 원장은 이 시의료원에서가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01년부터 4년까지 부평에서의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개업 시절에도 이미 오페라를 부르는 의사, 오페라를 부르는 병원으로 세상에 소문을 낸 바 있다. ‘포토에세이 『사람』’이라는 그 시절 MBC TV 아침 프로 비디오테이프 속에는 가수 배철수의 내레이터와 함께 ‘아픈 마음에 사랑의 묘약’을 불리 주는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김종석 원장과 부평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다. 물론 굵직굵직한 몇몇 신문에도 예외 없이 ‘보이지 않는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기사가 채워져 있다.

김종석 원장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한 호사(好事) 취미가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의 희망은 성악가였다. 대단한 미성(美聲)은 아니라 해도 레슨까지 받으면서 음대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원한 곳은 법대였다. 원하는 대학이 아니어서였을까. 그는 낙방하고 말았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서울대 의대. 그렇게 의대를 졸업하면서 우연히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부인에 의해 다시 그가 좋아하는 음악,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전 원래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내 서울로 와서 자랐으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옳겠지요. 그러니까 인천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던 셈인데, 1983년 인턴 과정을 인천시립병원에서 지내면서 첫 인연을 맺게 된 셈이 고요, 그 후 1990년에 다시 와서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8월 임기 3년의 원장 자리에 취임한 거니까…”

결혼은 레지던트 3년차 시절에 했다. 부인은 미대 출신이었다. 그 무렵에는 음악도 멀리 두고 의사로서의 업무와 술이 생활의 전부였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인이 그의 ‘음악’을 부추겼다. 그것이 주효했다. 그의 가슴속 한 구석에 묻혀 있던 그 옛날 ‘음악’이 문득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그 길로 대한민국 최고의 테너 중 한 사람, 서울음대 박세원(朴世源) 교수에게 사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해가 1987년일 겁니다. 서울 음대생 외에 개인 레슨은 제가 처음일 거고, 또 가수가 아닌 취미 활동이라는 단서를 달고 박 교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17년 동안 사사를 받은 것도 기록일 겁니다. 아무튼 발성만은 정확히 배웠지요.”

그림을 그리는 아내, 틈나는 대로 피아노 반주를 해 주는

딸, 집안은 그야말로 음악적이고 예술적이고…. 얼마나 행복할까. 오십 초반의 행복한 의사, 행복한 남자 앞에 마주앉아 잠시 그의 흰 가운과 단정한 몸매와 반짝이는 구두와 흰 손과 그러면서도 일상의 틀을 깨는 자신감과 희망과, 그런 구김 없는 삶의 흔적들을 헤아려 본다. 그는 시를 쓰는 우울한 남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심리 처방의 결과일까.

김종석 원장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이 오페라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가 정치심리학의 권위자라는 점이다. 김 원장은 의대 시절 프로이드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연구한 심리학자이다. 의학박사 학위취득 후, 199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도 들어가 소위 ‘대통령학’을 연구했다. 심리학과 정치학의 접목이었다. 석사 논문은 역대 대통령들의 성격과 리더십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의학박사 외에 행정학 석사학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보통 의사들과는 별나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그 점이 또한 그가 연구한 ‘심리학 전공’의 일환이기도 한 셈이며, 바로 이때 쓴 ‘대통령 논문’이 세상의 이목을 끈 것이다.

정치에 사뭇 민감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국가에서 역대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거기에는 이제 목전에 다가온 2007 대선주자들에 대한 심리 분석을 작년 6월부터 『신동아』에 연재했으니 그의 성가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쪽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정저와(井底蛙)가 아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에 앞서 김 원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리, 성격 전모를 진단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했다는 것이다.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반을 둔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성격에 대해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있어 유머 감각이나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보고서를 김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사로부터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여러 보고서가 올라갔겠지만 이 보고서가 진수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실제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과 상당히 일치했다는 것이다. 금년 12월, 대선 주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그의 분석서 내용을 여기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읽을수록 자못 흥미롭다.

“의학과 사회 과학을 접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의료, 문화, 교육의 접합을 의사로서의 완전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한 것도 이와 맥을 잇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병원보다 이런 식의 공사(公社)나 종합병원이 맞고요.”

이런 독특한 모습이 진정한 의사의 상(像)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인간을, 사회를 나름대로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는 매우 진지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과 의사로서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인천은 참 훌륭한 ‘마음의 의사’ 한 사람을 더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요즘도 계속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는 김 원장. 아직도 계속이나고 이쪽에서 질문을 던지자 김 원장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건, 꼭 한번 라 트라비아타 무대에 정식으로 서기 위해서죠.” 🐦

컴퓨터 사랑

이제 갓 백일 지난 아들과 자상한 남편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저희집, 식구가 셋 뿐이니 많은 살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컴퓨터만은 꼭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구요? 컴퓨터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사랑의 끈, 오작교 노릇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결혼 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메일로 약간 장난기 어린 요구가 담긴 편지를 보냈지요. ‘예쁜 꽃 그림을 한 장 보내주세요.’ 아마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쉴 겸 보낸 메일이었던 것 같네요. 잠시 뒤 답장 메일이 사진과 함께 왔더군요. ‘과연 어떤 꽃을 보냈을까?’ 약간 기대하며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컴퓨터 화면 가득히 보이는 것은 저희 남편의 큰 얼굴 사진. 지금이야 남편 얼굴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지만 그때는 만만치 않아요. 마음을 열 때도 아니었는데 컴퓨터 화면 가득 채워진 낯설게 느껴지는 남자의 커다란 얼굴 사진을 조용한 사무실에서 열어 보다가 뒤로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꼽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황당해 하는 저에게 남편은 진짜 예쁜 꽃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정말 예쁜 꽃들이 있는 식물원으로 데이트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 편지는 컴퓨터를 통해 매일 배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어찌 될까 가끔 생각도 해본답니다.

주향수_연수구 연수2동

컴퓨터와 연구수업

2005년 6월 27일 컴퓨터 연구수업을

했다. 부천상록학교의 담당 박선화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대한 연구수업으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컴퓨터 인증서를 받았다. 그날부터 나는 컴퓨터에



폭 빠져들었다. 또 바로 컴퓨터 연구수업이다. 박선화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셨고, 나는 컴퓨터 키보드로 글을 썼다. 내 친구 김사무엘과 안미용, 백가영 누나와, 유재호 형은 컴퓨터 공부

를 했다. 수학 시간에는 김아영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로 수학 공부를 했다. 덧셈과 뺄셈도 배웠고, 계산기도 배웠다. 그리고 또 물건 값도 계산을 했다. 나는 집으로 가서 컴퓨터를 했다. 바로 부천상록학교 카페로 들어갔다. 인천 송도 신도시 기사와 설 연휴 기사, 발렌타인데이 기사 등 수 많은 기사를 올렸다. 나는 컴퓨터 기사와 글에 폭 빠져들었다. 그리고 첫째 동생이 오면 컴퓨터 게임을 했고, 엄마는 컴퓨터 도박을 했다. 둘째 동생은 야후 꾸러기에 들어갔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강연을 감상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뭐든지 컴퓨터를 한다. 나는 새 학기가 되면 컴퓨터를 또 했으면 좋겠다. 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싶다.

송진규_경기도 부천시 상동

※편집자주 : 상록학교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히 퇴보하고 만다.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인 것 같다. 컴퓨터는 사람의 지식의 용량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날이 갈수록 컴퓨터의 수준은 더욱더 높아져만 간다. 인간이 어찌 그 컴퓨터의 수준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의 문화인 것 같다. 컴퓨터도 있어야겠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떼어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집 아들(9세)도 요즘 컴퓨터에 폭 빠져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영어 발음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아들은 공부보다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1시간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하는데, 게임은 두 세시간도 여유 있게 한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람의 뇌 기능에 무리가 될텐데, 인간의 편리함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와 인터넷(게임)으로 인해 사람의 뇌를 손상시키는 느낌이 든다. 아무튼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구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일수_부평구 부평동

컴퓨터와의 인연

내가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된 것은

1999년 12월쯤 되는 것 같다. 보험회사교육을 받을 때 가입설계서를 뽑아보아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본 것 같다. 전에는 머리가 항상 복잡해 컴퓨터 자판도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자판이



눈에 들어오고 가입설계서를 뽑아보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메일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컴맹이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인터넷을 가르쳐주는데도 눈에 잘 안 들어왔었다. 컴퓨터에 대해 겁을 내고 평생 컴퓨터는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구청에서 무료로 하는 컴퓨터교육과 국비훈련으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워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인터넷도 못한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우리 형편상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다.

대부분 엄마들이 컴퓨터가 있는 집은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배우게 된다. 이메일을 처음 보내볼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의 교육이 나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고 컴퓨터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와 나의 인연은 시작되어 컴퓨터로 이력서를 보내고 여러 신문사에 독자투고를 보내 신문사마다 신문에 글이 실려 작년 11월과 1월 사이에 10여 곳이 넘게 신문에 글이 실려 보았으니 컴퓨터가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배우면 좋지만 깊이 배우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하거나 한 달에 만원 정도면 배울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컴퓨터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해보면 다 잊어버린다. 컴퓨터와 친숙하게 지내는 길만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남궁금자_남구 주안3동

컴퓨터는 내친구

나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내가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2001년으로 기억된다. 당시에 나는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학사관리를 시작하였다. 당시 나는 컴맹이었기 때문에 리포트용지에다 리포트(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리포트도 워드로 작성하여야 한다가에 1:1 가정방문 강사로부터 3개월 동안 기초부터 차근차근 맞춤교육을 받았다. 여상을 나와서 타자를 배웠기에 자판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해서 출력하는 것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무조건 암기를 했다. 그 결과 기초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해서 워드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여 파일에 보관하였다. 하지만 당시 공대 학생이었던 큰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잘 때까지 컴퓨터를 차지하는 바람에 나는 아들과 컴퓨터 사용시간을 두고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2003년에 남편이 새 컴퓨터를 구입하여 아들을 주고 그 후부터 나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중년층에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추세(趨勢)라고 한다. 나는 직장에서도 늘 컴퓨터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3년 전부터 블로그(Blog)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카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최정숙_남구 주안5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나무’

다음달 테마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_440-2072)

월미산 자연환경안내자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자연안내 활동에 관심이 있고 월미산을 사랑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월미산 자연환경안내자(월미산지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일반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월미산 자연환경 안내자(월미산지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 모집기간 : 2월 20일(화)~3월 16일(금)

■ 교육기간 : 3월부터

- 기본교육 10강 이수한 자에 한해 추후 심화교육 실시
-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서부공원사업소 내 강의실, 월미산 일원

■ 모집인원 : 40명

■ 대상 : 자연안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월미산을 사랑하는 사람, 향후 월미산 자연안내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

■ 참가비 : 무료

■ 접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440-4623)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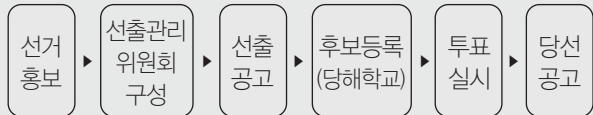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 구성 :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인사

■ 위원수 : 2007년 3월 1일 현재 당해학교 학생수 기준 5명~15명

■ 위원 선출·자격

- 기간 : 3월 2일(금)~3월20일(화)학교에서 선출
- 선출절차



• 임기 : 4월 1일 ~ 다음연도 3월 말까지

• 위원 자격

- 학부모 위원 - 당해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 교원 위원 -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 - 인천거주자로서 지역인사 교육행정가, 사업가 등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력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 학교운영위원회 코너(420-8231)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자를 공모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에 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영상기록물로 제작할 법인 또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인천지역을 주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의 영상기록, 기록책자 발간, 사진촬영

■ 소요예산 : 1억원 범위내

■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접수기간 : 2월 20일(화)~3월 14일(수)

■ 발표 : 3월 23일(금)

■ 영상기록물 제작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우리시 소정 양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등 제작 계획서
-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기타 신청자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 제작 영상기록물 등) 1부

■ 문의 : 시 문화예술과(440-4023)

인천알코올상담센터 이전 안내

인천알코올상담센터는 우리시의 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에게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 위치 :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 연수수도사업소 2층

■ 이용 대상

- 지역사회내 알코올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
- 알코올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 알코올상담센터 하는 일

- 알코올 남용·의존자 및 가족 전화·내방상담
-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 문제 예방 홍보·교육 등

■ 교통편

- 인천지하철 동막역 하차 30m 앞 버스 정류장에서 8번 버스 이용 여성회관 하차
- 동인천역 건너편(맥도널드 앞)에서 8번, 16번 버스 이용 여성회관 하차

■ 문의 : 알코올상담센터(236-9477~8)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출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입법 추진중입니다.

■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 조정 :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최초 시행될 당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연금보험료율은 낮게, 연금지급율은 후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점진적으로 조정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09년부터 매년 0.39씩 높아 2018년에는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춥니다.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연금혜택 확대 : 그동안 수급권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해소됩니다.

• 중복연금의 지급방법 개선

• 장애연금 대상확대

•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 신설 등

■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별도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4u.or.kr ☎1355)

한남정맥 시민조사단 모집합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수도권권의 젖줄인 한강, 그 이남의 산줄기인 한남정맥의 환경실태를 조사합니다.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확장, 골프장 등의 난개발과 자연환경을 조사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한남정맥과 어우러져 있는 인천,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남정맥 환경 실태조사에 동참할 시민조사단과 후원해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조사기간 : 4월~10월 (매월 셋째주 금·토·일요일)

■ 조사구간 : 한남정맥 전 구간 (12구간)
(안성시 칠장산~인천시 계양산~김포시 문수산)

■ 모집기간 : 3월 1일(목)~3월 20일(화) (사무처 전화접수)

■ 조사내용 : 자연환경 조사, 각종 난개발 조사, 시설현황 조사, 역사·문화현황 조사)

■ 조사방법 : 기초자료수집, 조사 내용 기록, 사진촬영

■ 참여방법 : 분야별 전문가 군과 함께 전 구간 또는 부분 참여

■ 후원방법 : 물품후원, 차량지원 (물품후원 - 봉고차, 코펠, 텐트, 각종 등산장비)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신청은 간사
(548-6274, 017-292-4430)

아파트홈페이지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에 의해 아파트홈페이지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많은 아파트단지마다 홈페이지가 필요한 가운데 당사가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파트홈페이지가 없는 지역 중에서 홈페이지가 필요한 단지별로 무상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독립형아파트 고급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 내용

세대수	도메인	웹호스팅	유지관리 보수
제한없음	무료	무료	무료

■ 샘플보기 : apt1005.com(인천만수주공), apt448.com(인천 삼산신성미소지움), apt65.com(인천부평옥일아파트), apt176.com(인천 부평대우 아파트)

■ 문의 : 아파트홈페이지제작센터 아이티쑈 (1588- 0905)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무상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 조성 및 근로자 능력개발촉진으로 인력부족 중소기업의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작하여 인천지역에서 515명이 지원하여 선정된 319명에게 총 5억원 정도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 신청대상 : 현 재직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정규학위과정(전문대 등)에 서 12학점을 이수한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이내 등록금(총 800만원)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접수기간은 홈페이지 (hrdkorea.or.kr)에 공고예정)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820-8642)

국제17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우리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인천의 유일한 국악배움터, 인천 예총국악회관에서는 제17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3월 19일(월)~6월 9일(토)

■ 강좌과목 : 민요·장구, 판소리, 가야금, 거문고, 단소, 대금·풍물, 모듬북, 한국무용, 해금, 피리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FAX

■ 문의 : 국악회관 (876-8364~5 FAX 032)876-8367)

※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악회관을 입력하세요.

신용회복법률서비스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의 10대 서비스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치론㈜ 운영)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07년 1월 5일부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 등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저 41만원의 저렴한 비용(채무건수에 따라 증가 가능)으로 신용회복업무대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 이용방법

- ① 한국이치론 홈페이지 접속(www.egloan.co.kr)
- ② 신용회복센터 무료상담 클릭
- ③ 정보입력(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상담내용 등)
- ④ 전문상담원, 고객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 ⑤ 상담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안내 및 고객이 원할 경우 협약 법무사 접수
- ⑥ 법무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전문적인 상담실시 및 채권자수에 따른 비용 설명

- ⑦ 고객이 수임의뢰시 법무사에서 법적절차 대행

■ 문의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홍보팀(02-3771-5907)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이용하세요

인천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행사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위치 : 연수구 동춘동 926-8 (인천지하철 동춘역 앞)
- 규모 : 대지 5,858평, 건평 664평 (단층, 경량철골조)
- 주요시설 : 상설전시판매장(55평), 기획전시장(405평, 부스 최대 150개 설치가능), 기타(204평)
- 상설전시판매장 : 등산용품, 낚시대, 신사화, 사리, 자동차용품, 건강용품, 공예품, 주방용품 등 120개사 2,600여개 품목 전시 판매
- 입점업체 모집 : 수시, 선착순 50개사
- 기획전시장 전시업체 수시모집 : 각종 전시행사 및 박람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행사, 이벤트 행사장 등
- 신청방법 : 입점신청서(소정양식)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산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양식 홈페이지 www.inbex.or.kr 다운로드)
- 문의 :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21-1841~3)

유교 경전 · 서예 강좌 안내

인천향교에서는 2007년도 연중 유교 경전과 서예 강좌를 실시합니다. 강좌에는 연령, 성별, 신분 제한 없이 두루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대학강좌 : 매주 화요일 10시30분~12시
- 맹자강좌 : 매주 수, 금요일 10시30분~12시
- 서예강좌 :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3시
- 강사 : 學山 강정원 선생

■ 강습료 : 무료

■ 장소 : 남구 학익동 677-1 번지, 학익 2차 신동아 아파트 정문 맞은편

■ 교통 : 좌석버스 111번, 일반버스 4. 13-1, 마을버스 515, 520 518

■ 문의 : 인천향교 전교 김대열(876-7041, 873-2041)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회원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 동안 함께할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3월 5일(월)~3월 25일(일)
- 모집대상 : 청소년(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 청소년 포함)
-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동아리연합회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방문, fax 접수
- 발표일시 : 3월 28일(수) 수련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활동내용 : 발대식, 단합 MT, 특강 강좌(리더십 등), 청소년대축제 참가, 송년의 밤(평가보고회) 등
- 지원사항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기자재 지원, 문화행사 지원 활동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각종 대회추천 및 공연정보 제공, 분야별 전문 강사 1~2회 (2~4시간) 지도 가능, 우수동아리 포상 또는 추천
- 문의 : 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담당자 김미정 465-6827~8)

클럽매니아 (동아리) 회원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클럽매니아 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1월~3월 17일(토)
- 대상 : 인천지역 내 중 · 고등학생
- 내용 : 마술, 연극, 댄스 스포츠(포켓볼, 탁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동아리 신설가능)
- 활동내용
 - 동아리 활동 지원(교육, 공연관람, 도구(소품)지원 등)
 - 수련관 내 행사 축하공연, 클럽매니아 축제, 자원봉사 활동 등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761-1318)



인천유나이티드 파이팅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7 K리그에 출격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정규리그 대진표

일자	대진	일자	대진
3. 4(일) 15:00	인천 – 포항	8. 8(수) 19:30	인천 – 대구
3. 17(토) 15:00	인천 – 경남	8. 15(수) 19:30	인천 – 전남
4. 7(토) 15:00	인천 – 대전	8. 25(토) 19:00	인천 – 제주
4. 21(토) 15:00	인천 – 전북	9. 1(토) 19:00	인천 – 광주
5. 5(토) 15:00	인천 – 부산	9. 22(토) 19:00	인천 – 수원
5. 19(토) 19:00	인천 – 성남	10. 6(토) 15:00	인천 – 울산
6. 16(토) 19:00	인천 – 서울		

10월 20일(토) or 10월 21일(일) 6강 플레이오프

10월 28일(일) 준 플레이오프

10월 31일(수) 플레이오프

11월 25일(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

12월 2일(수) 챔피언결정전 2차전

■ 인천 유나이티드 2007 K리그 조별 컵대회 대진표

일자	대진	일자	대진
3. 14(수) 19:00	인천 – 대구	5. 9(수) 19:30	인천 – 울산
4. 11(수) 19:30	인천 – 제주	5. 23(수) 19:00	인천 – 포항
5. 2(수) 19:30	인천 – 전북		

A조팀 인천, 대구, 울산, 포항, 제주, 전북

B조팀 경남, 부산, 수원, 대전, 광주, 서울

※ 성남과 전남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6강 플레이오프부터 출전

■ 문의 :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423-1500)



청소년자원봉사단 ‘Trace’를 모집합니다

우리시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및 인원 : 우리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100여명
- 모집기간 : 3월 5일(월) ~ 3월 25일(일)
-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가능
- 발표 : 3월 27일 (월) 오후 2시 수련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활동분야

분 야	인원(명)	장 소
시 설	50	· 영화상영 안내 및 정리 · 상시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물품대여) · 수련관내 게시판 꾸미기(4계절) · 수련관내 교육실 관리
문화행사	40	· 수련관내 문화행사 기획 및 보조 진행 · MT, 교육 및 강의, 단합대회 기획 및 진행
외부봉사활동	100	· 수련관외 복지시설 및 타 기관 봉사 (복지관, 동물원, 목장, 농촌봉사 등) · 청소년 다리 만들기
홍 보	10	· 수련관 홍보활동 · 청소년자원봉사단 신문 만들기 · 청소년자원봉사단 카페 관리 및 운영

- 봉사단 특전 : 봉사시간 인정(평일 4시간, 주말 8시간 이하), 청소년봉사단 기능봉사 참여로 자기계발(pop글 씨배우기 등), 청소년수련관 행사시 우선 참여 (여름 · 겨울캠프 등), 우수활동자 표창(상장 및 부상)
- 문의 : 시 청소년수련관 (465-6827~8)

사업 고민 짝~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 · 컬러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다섯 마리면 칼슘걱정 ‘뚝,’
멸치



멸치는 <우해어보>에서는 멸아, <자산어보>에서는 멸어라 하였고 한자어로 추어라 한다. 사할린섬,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연근해에 분포하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많이 잡히지 않지만 대청도 인근에서 조금씩 잡힌다. 멸치에는 뼈의 성장과 유지, 혈액을 응고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다섯 마리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모두 섭취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DHA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밖에도 멸치에는 타우린, 핵산 등도 많이 들어 있다. 먹어 보았을 때 짭맛이 강하지 않고 고소한 것이 좋고 구부러진 멸치는 살아있는 멸치를 삶아 말린 것이므로 신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지난호에 소개된 ‘송어’ 사진은 민어과 어류로 바로 잡습니다.

회상 - 신타리



이강화 作 · 333x130cm · 캔버스에 유화, 혼합재료 · 2004

지금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부평구 삼산동 일대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살아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던 비옥한 농토였다. 겨우내 얼어 있던 휴면의 대지 위로 새싹이 돌아날 즈음이면 어머니는 작은 칼 하나와 바구니를 들고 나가 하루 종일 쭉이며 냉이, 돌미나리를 캐오곤 하셨다. 웅덩이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습지에서는 옥잠화가 무리지어 보랏빛 꽃을 피웠고, 공해로 인해 늘 뿌영던 부평 공단의 하늘과는 다르게 삼산동 일대는 유난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비가 그친 날이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 습지를 헤치며 소재를 찾기에 분주했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 있기에 작품을 통해서만 반추해볼 뿐이다. - 이강화 -